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
는 모든 자연재해와 극심한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손을 펴서 주의
자녀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
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
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

디지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온라인 식단 쓸모없는 정보로 머리를 가득 채운 채 오래된 진리가 더 이상 놀라움을 주지 않는 시대

우리가 하루에 보고 듣는 정보의 양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부하로 우리의 감각, 특히 영적 감각은 점점 더 무디어진다.
수준이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 과

무감각이 미치는 영향은 단
지 사소한 사건까지도 쉬지 않
고 스크롤하는 엄지손가락에
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마
음은 점점 차가워진다. 단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자연재해
나 끔찍한 비극을 접한 우리는
즉시 다음 기사로 넘어간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논평, 아
이들이나 동물이 나오는 재미
있는 비디오, 그리고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라는 각종 기사
를 스크롤하기에 정신없다. 그
결과가 뭘까? 모든 게 흐릿해
진다. 너무 많은 정보, 지해라
고는 찾을 수 없는 시끄럽지만
한 배경이다.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알
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갈망
은 우리의 영혼에 깊고 미묘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실

온라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최신 정보와 발맞추려는 욕구
는 과거 아니, 최악에는 영원
까지 희생하면서도 오로지 현
재에만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
게 만든다. 그러나 정작 우리
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일
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
에서 벌어지는 토론과 논쟁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앙의 기초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뉴스
속보나 이번 주 핵심 토론 주
제 등을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바른 신
앙인은 믿음의 기반에까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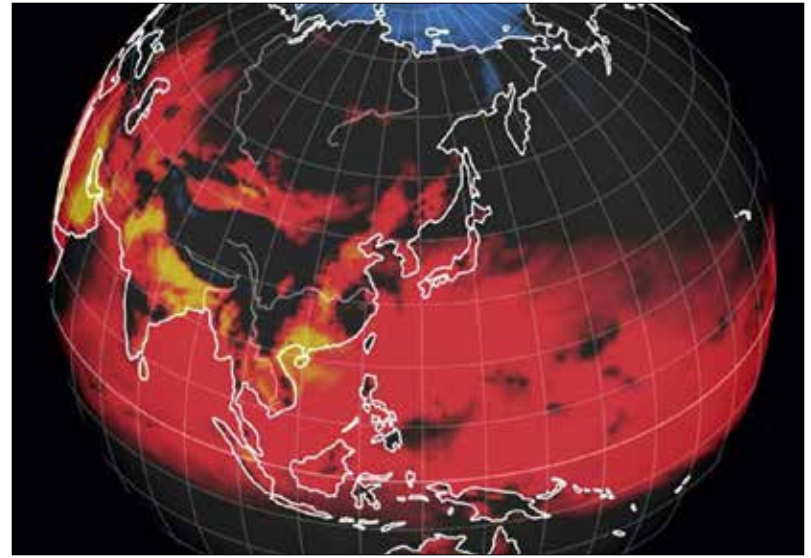
깊이 파고 내려가서 우리에게
는 여전히 든든히 설 곳이 있
음을 점검한다. 아무리 거센
문화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는 나무처럼 우뚝 서기 위하
서 우리는 더 깊이 뿌리를 내
려야 한다. 우리에게 뿌리가
없다면,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
는 파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매일 소용돌이치는 뉴스와 정
보에 현기증을 느낄 것이다.

내가 The Thrill of Orthodoxy
를 쓴 목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
여귀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이
주는 짜릿한 아름다움을 깨닫
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교회가 만난 가장 큰 도전은
새로운 오류가 승리해서가 아
니라, 오래된 진리가 더 이상
놀라움을 주지 않아서이다. 온
라인에 종속될수록 성경의 깊
고 풍부한 진리는 더 이상 우
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우
리의 정신은 마비되고 가슴은
쪼그라든다. 오늘 하루도 쓸모
없는 정보로 머리를 가득 채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식욕을 느끼지 않는다.

얕은 곳으로 향하는 낮은 길

세상 모든 일을 다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일어나
는 사건은 표면 아래 정도를
살짝 파헤치는 정도로 충분하
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성경이 펼쳐놓는 이 세상
의 위대한 이야기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는 왜 여기에 존재하나? 우리
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
엇인가? 기독교의 진리와 궁
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
하게, 또 끊임없이 상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없이 천박
해질 것이다. 두 마음을 품고
모든 길에서 헤매며(약 1:8),
오늘을 살아가는 데 가장 신실
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조차 갖추지 못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BBC 기후변화: 끓는 지구, 폭염·폭우 동시에 반복되는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끓는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현
상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최근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
럽에선 고온으로 인한 산불로 40명
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상
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처럼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지구 평균온도가 높아지면서 극단
적인 날씨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지구 평
균 지표면 기온은 16.95도로 나타
났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2019
년 7월 기온(16.63도)보다 0.32도
더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
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
스는 최근 전 세계 평균 지표면 온
도가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
다면서 "올해 7월은 가장 더운 7월
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상청(NSW)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미국 남서부 지역과 동북부 지
역은 열돔 현상으로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 시대에 발 맞춰 재난 경
보 시스템과 예방책을 개선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비
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가.

(9면으로 계속)



시론
민경엽 목사



3면
푸른초장
허윤준 목사



4면
인터뷰
리빙위십&제이어스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3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안내

복음의 임팩트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러운 동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모집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여교역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신도 어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M.R.E)	2년	
	선교학석사(M.Miss)	2년	
	신학석사(Th.M)(설교학)	2년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4. 신앙고백서 1부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5. 명확한 사진 2매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부	6. 입학전형료(\$30)

평신도 음악원 개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부설 평신도 음악원(음악학과)를 뉴욕지역 교회 찬양팀을 위하여 2023년 가을학기부터 개설합니다

1)기타반	2)키보드반	3)하모니카반	입학 상담 문의 : 646-708-1011
-------	--------	---------	-------------------------

원서 교부 및 접수

- ◆ 원서접수마감 : 2023년 9월 1일(금) 오후 6시
- ◆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 입학시험 : 2023년 9월 2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 ◆ 개강부흥회 : 2023년 9월 5일(화) - 9월 7일(목) 저녁 8시
- ◆ 문의처 : 학감 정기태 목사 : 917-733-7387
행정실장 김신정 전도사 : 646-708-1101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특전

- 1)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2)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심사 후 Scholarship을 지급함)
- 3)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시학장서를 소장한 '토기장이 북카페(도서관)'가 있음
- 4) 목회학석사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5)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과정후, 심사를 거쳐 개교회로 지원함
- 6)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발행인 칼럼

캐시가 필요하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캐시(cash)가 필요하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돈은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것이다. 그 필요함과 중요함이 지나쳐 돈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숭배까지 할 수 있다.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창때 돈을 버는데 집착하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 후반에 그 번 돈을 대부분 병원비로 쓰다 죽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윗픈(우스우면서 동시에 슬픈) 이야기도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어느 작은 가게를 경영하는 유대인이 중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고 온 가족이 임종하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때 아버지가 물었다. '여보!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요' '아들아! 너도 있니?' '네. 여기 있어요. 아버지' '딸도 여기 있느냐?' '네 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요' 가족이 다 옆에 있는 것을 알고 난 남자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기다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는 거냐?' 그는 돈을 벌지 않고 모두 임종에 와 있는 가족들을 너무 안쓰럽게 여기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정작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돈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 안타깝다. 그런데 이런 류(類)의 이야기가 왜 유대인 가족에게만 있었는가. 동서고금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캐시(cash)가 필요하다. 그러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던가.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꿀잠은 살 수 없다. 지식을 쌓아가는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많은 음식은 살 수 있겠지만 어떻게 입맛까지 사겠는가. 돈이 있으면 병원도 갈 수 있고 좋다는 약을 다 살 수 있어도 건강 자체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잠시의 쾌락을 누릴 수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살 수는 없다.' 그렇다. 욕심을 버리면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어떤 상황이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다윗의 고백이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많이'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자족(自足)의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승리자요 행복자이다. 물론 현재를 만족하는 자는 게으른 오늘을 살거나, 미래 앞에 나태하게 사는 자를 결코 뜻하지 않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캐시(Cassie)가 필요하다. 1999년 4월 20일 화요일, 그는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이 땅을 떠났다. 그날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콜럼비아 고등학교에서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학교에 재학생 두 명이 난사한 총에 1명의 선생님과 12명의 학생이 죽고 2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캐시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범인 중 한 명은 캐시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Yes)고 대답했다. 그 대답과 함께 캐시는 범인이 쏜 총에 숨지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를 얼마나 기쁘게 영접하였겠는가. 그런 캐시가 오늘에도 필요하다. 대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일 중국으로부터 대만이 공격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는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놀랍게도 대부분 대만 청년들이 '어디론가 도망가겠다' '무서워 숨어있겠다' '미국이 알아서 도와줄 것이다' 등의 답변을 하는 것이다. 본국민이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를 누가 도운들 어떤 전쟁에서라도 이기겠는가.

캐시(Cassie)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해 "Yes"를, 사단을 향해 "No"를 외칠 캐시가 필요하다.

소규모 교회를 위한 선교 전략

복음을 선포하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라, 파트너십 개발과 기회 제공에 힘써라

나는 네 종류 국적의 소유자다. 아일랜드인 아버지의 아들로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스코틀랜드에서 성장하여 미국인 아내를 맞아 결혼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 여권 외에 두 개의 여권을 더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 이상의 여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런데도 나는 현재, 대부분의 주민이 여권을 가져본 적조차 없는 작은 캔터키 마을의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많은 교회는 대부분 100명 미만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회의 대다수는 작은 마을에 소재하고 있다. 이런 교회가 선교를 위해 나서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해외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다. 교인 대다수는 선교지까지 가기 위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할 여유도 없다. 게다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외부로 보유한 역량을 펼쳐보겠다



안 우리는 30명 가까운 교인들을 보내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척을 지원하였고, 필리핀 남부에서 핍박을 받았던 목사의 훈련을 위해 다른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였으며, 해외에서 현재 풀타임 선교를 하는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도왔다. 이처럼 작은 규모의 교회라 할지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는 작은 교회들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미국에서 온 네 명의 목사가 필리핀 남부 지역을 함께 여행하며 핍박받는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일주일 동안 정글 속에서 성서 신학을 가르치고 그 지역의 성도들을 통해 선교를 위해 준비되도록 양육하는 일을 상상해 보라. 이들 중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해본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전략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해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결코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 선교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는 계획에 회의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전략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해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결코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 선교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 하는 선교적 열망을 가졌다면 아무리 교회 규모가 작더라도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잘 따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비교적 작은 지역사회(인구 약 20,000명)에 있는 소규모 교회(출석 교인 수 140명)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러한 숫자에 불과한 통계가 우리의 비전을 가로막거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난 1년 동

볼과 몇 주 전에 나는 캔터키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과 더불어 복음 선포를 담당할 교회가 없는 스코틀랜드 마을의 거리를 걸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을의 유일한 성도의 가정에서 그들과 함께 그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그려보며 모임을 열었다. 이런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교회 신도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복음 전도의 열망에 불타는 그들의 노력을 돕기 위해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기꺼이 정착하여 교회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자금 조달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소명을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고자

적이지 않고 세계 선교에 관여해 본 경험도 없는 교회에서 시무하였다. 그런데도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는 어떻게 다른 나라를 위한 선교적 헌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복음을 선포하라

선교와 관련된 여러 통계와 영상 자료들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오직 복음만이 성도들을 바르게 움직여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는 곳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이에 대해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2차 세미나
일시: 7월7일부터 8월11일까지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워크샵 참석 베네핏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내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대신 해 줌.

디지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1면에서 계속)
 우리의 주의가 분산된 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파스칼은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인류에게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산만함과 자극을 찾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독과 성찰의 시간을 피한다. 그러나 고독과 성찰이 사라진 기독교는 시들기 마련이다.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음미할 충분한 공간과 집중이 필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상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기쁨과 안정을 찾을 것이다. 바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역사적 성경(creed)과 교회의 신앙고백이다.

팟캐스트보다 신앙 신조?

수많은 성경에서도 특히 사도 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셋이 두드러진다. 이 속에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께 누구이며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한 설명이 담겨있다. 더불어서 기독교의 핵심인 삼위일체를 적시한다. 종교개혁 기간과 그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역사적 신앙고백서는 마치 잘 짠 직조물처럼 신앙의 총만함을 자세하고 아름답게 묘사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상부구조, 그러니까 청사진을 제공한다면, 고백은 세부사항

을 채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큰 명료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수천 페이지의 산문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진실과 인간의 위치를 연구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물으셨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기독교 신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확신을 품고 고백하려는 우리의 시도이다. 신학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그의 의로운 성품과 구원 행위의 탁월함을 누리는 것이다.

고대의 신경은 끝없는 수다와 논쟁이 펼쳐지는 소셜 미디어 같은 온라인 세상과는 동떨어진 세계처럼 보일 수도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신경이 중요하다. 신경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먼지투성이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그것이 단지 문서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신경은 신앙의 기초를 설명한다. 정통을 지키는 난간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이자 진리의 기둥, 그루터기인 교회의 증언이다(딤후 3:15). 신경은 모든 시대에 불어닥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안정되게 유지한다.

소음에 대항하는 전략

소음이 진동하는 디지털 시대에 지혜를 기르는 방법은 무

엇일까? “지금”이라는 전박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담은 우물에 우리 자신을 깊이 잠기도록 하는 관행을 구현해야 한다.

첫째, 매일 아침 “휴대폰보지 않기”라는 규칙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고 구식 알람시계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로 옆에 성경과 기도 가이드를 준비하라. 세상의 소음이 끼어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보내자. 매일 아침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는가? (나는 종종 Psalms in 30 Days(30일 시편 묵상)이라는 기도 여행 가이드를 따라서 아침 시간을 보낸다.)

둘째, 온라인 기술을 유익한 방향으로 전환하자. 영적 성장을 돕는 (성경에 깊이 잠긴 목소리, 신경 정통에 기반을 둔 조직 등) 소셜 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하라. 팟캐스트 구독 리스트에 교회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추가하라.

셋째, 스코틀랜드를 공부에 활용하자. 온라인 섭취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라. 그리고 거거서 얻는 정보의 일부를 실질적인 신학 내용으로 대체하라. 하루에 15분 또는 20분 이상 앱을 사용하면 알람이 울리도록 휴대폰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 없는 습관에서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습관으로 바꾸고 싶다면 최소한 소셜 미디어에 보내는 시간만큼은 책 읽는 데에 보내야 한다. 기

독교 신학의 기초를 꿰뚫는 두꺼운 신학책을 하나 집어라. 가장 두꺼운 조직신학 교과서나 교회사 책이라도 하루에 두세 페이지씩 꾸준히 읽으면 일 년 안에 완독할 수 있다.

넷째, 혼자 하지 말라. 최신 뉴스보다 변치 않는 진리를 우선시하려는 믿음의 친구를 찾아라. 신경은 나 혼자 믿는 게 아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진술이다. 애초에 개인이 고백하는 믿음의 진술로 시작한 사도 신경은 세례 의식으로 발전했고, 세례식은 개종자의 선한 고백을 축하하기 위해 온 교회가 참석하는 축제가 되었다.

폭풍 속에서도 꾸준히 열매를 맺자


마음 없는 스코틀랜드에 대한 해결책은 오로지 집중뿐이다. 성경을 공부하고 고대 신경과 신앙고백을 숙고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키움으로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모두가 다 최신 소식에 요동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에 뿌리를 내리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오로지 주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다시 일깨워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날 격동의 시대에도 꾸준히 열매 맺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by Trevin Wax, TGC

시론

자녀에게 부모는 최후의 보루다!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1889년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두 아이가 태어났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성격이 과격하였고 부부는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사교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라서 가정을 싫어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일찍 죽자 어머니는 아이를 알콜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도망가 버렸다. 아이는 16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였으며 힘약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일찍 군대에 갔다. 그의 거친 성격이 군대에서 잘 통해서 승승장구하며 출세의 길을 걸여갔다. 그는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전쟁광이요 6백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유대인을 죽인 살인마 아돌프 히틀러였다. 바로 그해에 태어난 또 한 아이는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나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교회의 주일학교를 잘 다니면서 성장했다. 아이는 여덟 때 온 가족이 캔사스 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의 부모가 이사를 한 것은 농촌 생활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 유익하다는 딱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 가정의 가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사는 동안 세계 평화를 위해 쓰임 받기를 매일 기도하였다. 그는 1차 대전 중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 장교가 되었다. 그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다.

이 두 사람은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북부의 해안인 노르망디에서 마주쳤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이기면 세계에 평화가 오게 되어 있었고, 독일군이 이기면 온 세상이 살인마 히틀러의 마수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이때 아이젠하워는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에서 이겼고, 세계 평화의 길을 열었으며, 덕분에 한국도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그가 숨어서 지내던 방공지하실 안에서 연인과 함께 자살하였고, 아이젠하워는 평화의 사도로 인정을 받아 두 번이나 대통령에 선출되어 미국을 통치하였고, 80세에 아주 편안하게 생애를 마쳤다.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나를 세계 평화를 위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일을 마치고 아버지의 나라로 갑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도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부모의 차이였다고 할 수 있다. 둘의 부모는 모두 평범했지만 한 부모는 악마를, 한 부모는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 천사를 만들어냈다.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 자신도 딸들이 어릴 때 좋은 부모라고 은근히 생각하였으나 그 자부심은 일찌감치 깨졌다. 언젠가 딸 중 하나에게 “무슨 목사가 그 모양이야?”라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 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나는 딸의 그 말에 너무나 부끄럽고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 할 말을 잃었다. 남들에게, 심지어 아내에게도 그런 사실조차 한동안 이야기를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몇날 며칠을 속앓이를 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딸들이 크게 속 썩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다.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녀들 중에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등진 아이들이 제법 된다. 대개 내가 시무하는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 이제는 머리가 커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믿어주기를 바라지만 거의 포기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후의 보루다. 훌륭한 부모는 못될지라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권면해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다. 4세기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방황하는 아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격려한 말이 생각난다.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자녀들은 부모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도 돌아올 수 있다. 기다려주는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그 자체로 불쌍하다.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부모들이 있기에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

minkyungyob@gmail.com

소규모 교회를 위한...

(2면에서 계속)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배받기 원하시며, 예수님의 선포로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에 관한 설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계 선교의 책임에 대한 열정을 갖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흐르는 선교적 사명의 실마리를 강조하는 성서 신학의 내용으로 설교하도록 한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라

선교지가 있는 나라를 위해 예배 중에 기도하며 특정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드린다. 나는 Operation World(www.operationworld.org)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특정 기도 대상을 정해 집중적으로 기도

한다. 교회가 지원하고 있거나 교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 특별 기도를 드리도록 한다. 교회가 선교사와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영상통화 또는 사전 녹화된 비디오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교 대상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사역 현황 소개, 선교지의 여러 필요와 요구 사항 그리고 기도 요청을 모든 성도와 공유하도록 한다.

파트너십 개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활용하도록 한다. 우리 교회는 서서히 관심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와 몇몇 교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류하며 협력하고 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선교

대상의 선정에 대해 지역의 다른 교회와 협력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금년에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의 선교를 진행하기 위해 세 곳의 다른 교회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우리 교회는 향후 5년 동안 스코틀랜드에 10곳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동역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 크게 애쓰고 있다.

기회 제공

마지막으로, 선교지로 가는 것을 고려하되, 이미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의 파트너로 참여하며 그들의 지침에 겸허히 따르도록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선교사 또는 기관과 협력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한다. 복음 중심적인 사역을 하여야 함을 명심하고 그 지역에 교회

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우리 교회는 여행 비용의 50퍼센트까지 재정적으로 후원한다. 지역의 침례교회 협의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선교를 위한 경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개발하였다. 만약 우리가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열방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을 확실한다면, 우리는 모든 교회 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선교에 관한 흥미진진한 잠재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by Matthew Spandler-Davison, TGC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목사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세월을 아끼는 비결

얼마 전 한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되었다. "스티븐 그렛은 프랑스 태생의 독실한 신앙인으로 1855년 미국 한 마을에서 죽었다. 만일 그렛이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지 않았으면 세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김으로써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나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 혹은 그 어떤 친절도 미루지 않고도 당장 실천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지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의 꿈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최대한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누구도 시간을 멈출 수 없고, 훗날을 위해 보관해 둘 수도 없으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도 없다."

나는 이 글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그 이유는 순간순간의 선행이 아름다운 열매를 미래에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다음에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었을 때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런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 선행이 기초로 하지 않는 삶은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

문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희생을 각오한 우리의 작은 선행이 있을 때 수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행은 연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 확신한다. 그 선행은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갈라디아서 6: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얼마 전 우리 교회 주보에 목사의 묵상 칼럼란에 '내가 추구하고 바

라는 것'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다.

"요새 많은 분들이 나에게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한다. 이제 좀 쉬면서 해도 되지 않냐고 말한다. 특별히 아직도 제자훈련을 직접하고 있냐고 묻고 직접 선교지에 가냐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일해야지 늙으면 할 수 없어서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는다. 그 기회란 내가 노년이 되어도 죽어서도 계속 열매를 거두게 될 기회를 말한다. 나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후회

없고 보람된 삶을 위하여 현재의 시간을 아낌없이 하늘의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번 선교도 갈 수 있었다. 육체는 피곤하지만 당장 맺힌 열매와 그리고 앞으로 맺히는 열매를 보며 참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내가 소명 받은 목사처럼 살아가고 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케 주실 것을 하늘 문을 향하여 두 팔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한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허윤준 목사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저는 오늘 "새 힘을 얻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과학, 정보, IT 산업 등 모든 것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면,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여유있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하고, 더 기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여유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 정작 믿는 성도들까지도 기쁨과 감사가 없이 힘을 잃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는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동바동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날마다 성도답게 살 수 있음에도, 자꾸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이 힘을 잃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새 힘"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봐야 하겠는데, "새 힘"이라는 뜻은, 그저 어떤 "새로운 힘이 더해진다", "New power가 더해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바꾸어 입는 것 같이, "Renew their Strength, Restore"라는 뜻의 "낡은 것을 새것으로 완전히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연약하고 낡고 수고하고 무겁고 불편하고 힘든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새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새 힘을 얻어서 성도답

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시간부터 습관적인 섭섭함과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름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시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

것을 깊이 인식하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분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깊은 절망속에 빠질지라도, 참된 성도

어놓을 수 있는 성도는, 오히려 사람이나 이 세상 앞에서 결단코 약해지거나 무능해지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사람들에게 들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약한 것을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총만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니라" 아멘!

진정 이 시대를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솔직하게 약함을 고백함으로써, 늘 새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앙망하다"는 뜻은, "집중하며 기다리다, 의지하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다"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의 길이가 2천 6백 마일 정도 되니까, 그 조그만 독수리가 양쪽을 날개를 펴고 힘차게 한 번 나르면, 멈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2) 독수리의 눈은 사람의 눈보다 여덟 배를 더 잘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독수리는 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강해서 수직으로 내렸다가 수직으로 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 30절에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력무력 자라는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뿔뿔히 뜬 군병들도 얼마든지,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위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어서,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이 넘쳐서,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 가치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면 달려가면,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한 번뿐이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늘 영적 육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늘 기쁘고 즐겁게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섭섭함과 불평을 없애고 감사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하게 솔직하게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한가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위로부터 새 힘이 임하여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ameshur63@hotmail.com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40:27-31

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본 구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이것은 그러저가 한두 번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즉, 하나님께 Complain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신실한 성도님들도,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몰라주신다는 생각이 들 때처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여정속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섭섭함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죽게 된 것 때문에 삼니다. 남들이 슬픈 일을 만나서 괴로워할 때, 우리는 그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됩니다. 남들이 풍랑을 만나서 한숨을 쉴 때, 우리는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두 번째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 앞에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히 내

심을, 저희들은 수없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위로부터 임하시는 새 힘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크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내 자신의 실존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드러나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바라보는 것도 슬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바라보고, 기다리면서도 탄 곳에 한눈팔지 않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경마장에 달리는 말을 보면, 눈 앞 옆을 이렇게 가려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0.01초라도 다른 곳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앞만보고 달려갈 때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도 모르는 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 독수리 같이 날아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독수리"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독수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독수리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와 같이 표현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독수리는 때로는 완정히 죽는 것 같이 쓰러져 있다가, 어느새 날개를 푸드득 하고 날아옵니다. 유유히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아무튼 새 중에서 날개가 가장 강한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양쪽으로 2미터가 되는데, 독수리가 한번 날았다 하면, 약 4천 마일을 아주 유유히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차단시키는 악법들을 막는 LOBBY DAY 에 모두 초청합니다!!
8월 21일 월요일, 새크라멘토에 모두 모여 주세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문제는 행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단체는 캘리포니아와 미 전역에서 앞장서는 미국단체들과 연합하여 또 한 번 새크라멘토에서 학부모 권리 회복을 위해, 학부모의 권리를 차단시키는 악법들을 막기 위한 Lobby Day를 갖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빼앗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양육, 교육, 의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이러한 결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다 함께 외칠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작되는 서류임)
Enough is Enough!

우리는 지금 선을 반드시 확실하게 그어야 할 때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입법자들에게 부모의 권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권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부모와 조부모들은, 8월 21일 새크라멘토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함께 모여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AB 665, AB 957, AB 1078 및 AB 50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일 것입니다. 로비 리더들과 함께 각 입법부 상원, 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이 악법들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알릴 것입니다.

스케줄: 오전에 등록 및 training으로 시작하여 Rally가 있는 후, 로비리더들과 함께 새크라멘토 입법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TVNEXT.org@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스케줄과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맺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부모와 자녀들을 분리시키고, 잘못된 거짓 정보로 자녀들이 부모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게 만드는 악법들을 계속 두고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의 성교육, 정체성 교육이 잘못됐다고 문제만 서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누구 한명의 리더로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문제해결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행동은 적지 않은 희생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고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희생이든, 재정적 희생이든, 권력의 희생이든, 어떤 희생이든, 내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구할 수 있다면, 그들의 영혼이 최악의 길로 Break가 고장 난 차처럼 달리고 있을 때, 멈추게 할 수 있다면, 학부모들과 어른들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소중한 "어린 영혼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돼 확실히 여러분의 의견을 행동으로 보여 줄 때입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여러번 자녀들과 차세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부가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아래의 악법들을 막지 못한다면,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 전역의 Deep Blue States 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위협해질 것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법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Founding Fathers(미국을 설립한 설립 아버지들)가 성경의 원리원칙인 삶의 법칙들을 인용하여 비록 부족한 가운데, 건강할 성경적 법들로 기초인 헌법(US Constitution)을 만들어 한 분뿐인 "창조주 하나님" 만이 모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Deep Blue States 들은 지난 13년간, 수많은 악법을 "선"이라고 왜곡하여 통과시키고 오늘날까지 와서, 독이든 열매들을 우리 자녀들이 먹고 있기에, 통탄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21일(월) 새크라멘토의 주의사당 계단에서 책 힙스 목사님과, 수많은 미국 학부모, 조부모들이 모여,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초청 연사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학부모들을 제외하고, 학

입법 회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기에, 더 더욱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 악한 법안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 위해 책상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의 책상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개빈 뉴섬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반대 목소리와 행동과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속히 행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권리를 위협하는 법안들-Bills Threatening Parental Rights & Children: 아래는 아주 급한 몇 가지 악법들만 나열했습니다.

더 많은 법안은 TVNEXT.org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읽으세요.
AB 665 - 주 정부가 승인한 납치 법안 (정부가 승인한 모든 자료, 사람들로 인해 자녀는 학부모와 헤어져 다른 곳에서 살게 되는 법)

AB 957 - 판사는 양육권에 대해 성별(gender)을 인정해주는 부모만 허락하게 합니다. 즉, 자녀가 동성애가 되는 것,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불변해하고 반대하는 기색만 내비쳐도 자녀를 정부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AB 1078 - 주 정부가 지역 교육청을 통제하는 법안(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 도우려는 교육청을 차단시키고 불이익을 주게 하는 법)

AB 5 - 성 소수자 부모를 인정하는 학부모의 프로필을 작성하도록 교사 교육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도중에 네비게이트 창설자인 도슨 트로트만의 원맨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섬겨야 한다고 하는데 도슨 트로트만과 원맨 비전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비치 이희은

네비게이트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만의 원맨 비전

A: 도슨 트로트만은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장도 할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자였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사정으로 대학을 가지 못하고 도박과 술에 빠져 매일마다 의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술을 많이 먹고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찾는 중에 그를 본 한 경찰관이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청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정말 지겹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는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나. 그는 결국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교회에서 성경암송대회가 몇주 후에 있어 상을 타기 위해 여러 구절의 성경 암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교회도 흥미를 못느끼고 그만두었습니다. 한번은 사우스베이 로마타에서 트럭 운전사로 아침에 일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외운 성경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 5: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주여,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지금 믿어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하며 무릎 꿇고 조용히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운 성경 말씀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의 삶도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노름과 술도 끊고 신약 성경을 읽는 중에 마 28:19-20절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의 약속으로 붙잡고 그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복음화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지역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것, 즉 "One man Vision"을 자기 사명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비게이트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원맨 비전을 가지고 해군과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평생 헌신했습니다. 원맨 비전은 한 사람의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Each entry includes a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details like phone, fax, and website.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크리스천의 품격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비싸고 이름있는 물건을 들고 다니면 더 격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명품 가방을 가질 때 외출할 마음이 생기고 명품 옷을 입고는 날개가 달린 듯하여 자신감을 준다고 합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명품 시

계를 차고 소매를 걷고 남에게 보란 듯 소매를 올리고 손짓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명품 수입차가 호황이고 수입차를 선호합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차를 타고 다닐 때 주변에 눈길을 끌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명품 수입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고급

호텔이나 식당에 시시한 차를 타고 가면 대접받지 못하기에 값비싼 자동차로 자신을 포장하기를 원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명품 자동차를 선호하는 것은 사회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고 또 돋보이기 원하는 자신의 욕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어떤 자동차를 타는가는 개인적 선호도에 의해서 좌우되기에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지만, 이와이면 명품과 이름있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고 쓰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것 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진 분을 가끔 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중 한 분은 헌금을 하지만, 자신은 그냥 수수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명품을 가졌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올라가거나 사람의 명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품격이 어떤 "로그"를 붙여서 가치를 매기고 이 사람은 명인이고 아니고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

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의 성격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에서 구성된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품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그냥 외모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특성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속사람이 바뀌고 후에 하나님과의 매일 교제를 통해서 걸 사람 조차 바뀌어져 가는 여정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들품 품격이 매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신앙인격이야말로 진정한 한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품격을 가장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이 때

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말의 품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은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성경은 악한 말, 분노의 말, 비방과 거짓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막말, 부끄러운 말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버리라고 합니다. 품격을 잃은 말은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 선한 말, 위로의 말, 덕스러운 말, 진실한 말과 긍정적인 말입니다. 희망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의 말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배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말의 품격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본소득 축소를 문자 안 통으로? 이노동자 들, 분노 폭발

이탈리아의 기본소득 정책인 '시민소득'을 축소되자 생계가 막막해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재확산하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공영방송 라이(RAI)가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시민소득을 축소하는 노동개혁법을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발표한 뒤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이날 이탈리아 남부 도시 나폴리의 국가사회보장공단(INPS) 본부 앞에서는 시민소득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같은 날 남부 시칠리아섬 테라시니에서는 60대 실직자가 시장실에 난입해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제지당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 1일 내각 회의를 열고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시민소득 개혁을 선언했다. 개정안에는 혜택 금액과 기간을 축소하고 단기 일자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소득은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M5S)의 주도로 2019년 도입됐다. 무직자나 저소득자에게 생계가 가능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 제도는 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10%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적자를 심화시켰다.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멜로니 총리는 혜택 축소를 주장해오던 노동절에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59세 빈곤층에게 현재 가구당 평균 월 550유로(약 78만원)씩 지급되던 시민소득이 폐지됐다. 당시 멜로니 총리가 대표인 이탈리아형제들(FdI)은 당시 야당으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안사(ANSA) 통신은 지난달 28일 약 16만 9000가구에 시민 소득이 삭감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시민소득 수급자 대부분은 북부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부 지역에 몰려 있다. 시민소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문자 메시지로 확인한 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시민소득 축소를 처음 발표했던 당시에도 수도 로마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는데, 문자 메시지가 도화선이 돼 이날 재점화된 것이다.

생계가 걸린 문제를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전달한 것이 가족이나 분노에 찬 노동자들의 반발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느낀 것이다. 야당은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엘리 솔라니 대표는 "잔인한 삭감"이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9년 시민소득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인 주세페 콘테 전 총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희생양 삼는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태풍 '독수리' 덮친 베이징 일대 20명 사망...도로 끊기고 주택 잠겨

제5호 태풍 '독수리'가 상륙한 중국 베이징 일대에 폭우가 쏟아져 최소 2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홍수가뭇대 응 지휘부는 이날 오전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대와 경찰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구조 작업을 벌이다 물살에 휩쓸린 민간 대원 4명 등 27명은 실종됐다. 태풍 독수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베이징에는 평균 257.9mm의 비가 쏟아졌다. 베이징 외곽의 먼터 우저우구가 470.2mm로 가장 많았고 팡산구 414.6mm, 창핑구 285.8mm 등에 특히 많이 내렸다.

중국 온라인상에는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차량 수십 대가 물에 떠내려가는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이번엔 내린 폭우로 4만467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2만 70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다. 하이허 수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홍수 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1급으로 격상했다.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에도 많은 비가 내려 이날 낮 기준 9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허베이성에는 지난달 27일부터 평균 137.4mm의 비가 내렸고 바오딩시, 덩저우시, 스자좡시 등에 집중됐다. 이번 폭우로 허베이성에선 54만70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부터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이미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높아져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여기에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20km로 북상하고 있고 2일 오전 중국 동남부에 있는 저장성과 푸젠성 북부 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얀마 군부, 야생산 수치 일부 사면...형량 33년→27년

미얀마 군부가 1일 야생산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한 일부 사면을 단행했다. 19진 혐의 중 5건이 사면돼 수치 고문의 형량은 33년에서 27년으로 줄었다.

현지 일간 미얀마나우 등에 따르면 군부는 불교 경축일을 맞아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의 형량 일부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수치 고문이 유죄 판결을 받은 19진 범죄 혐의 중 코르나19 방역 정책 위반, 무면허 통신 장비 소지 혐의 등 5건이 사면됐다. 올해 78세인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형량이 일부 줄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평가다.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가택 연금의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에 갇혀 있다. 지난달 24일 정부 건물로 이송됐다. 민 대통령의 경우 두 가지 혐의가 감형돼 12



년에서 8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군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되며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군정은 애초 이달중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국가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다. 이어 또다시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횟수보다 2번 더 비상사태를 연장하게 됐다. 인권 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약 3850명이 살해됐다.

모스크바 드론 피습...주변 공항 운영 중단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고층 비즈니스센터 타 건물에 1일(현지시간) 드론(무인기) 공격을 받아 1개 층이 손상됐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드론 몇 대가 모스크바로 비행하던 도중 방공망에 격추됐다"고 밝혔다. 소바닌 시장은 이번 공격한 드론 중 1대는 지난달 30일 드론 공격을 받은 '모스크바-시티' 고층 건물까지 날아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바닌 시장은 "건물 21층 전면이 파손됐고 150㎡ 넓이의 창문들이 부서졌다"고 전했다.

타스통신은 모스크바 남서쪽 브누코보 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30일 모스크바 드론 공습 사실을 시인한 뒤 추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우라늄 대국' 니제르 쿠데타에...EU, 우라늄 수급 불안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프랑스에 대한 우라늄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원전을 가동하는 유럽 국가들이 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니제르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우라늄 생산국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우라늄 광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유럽 전체 우라늄 수입량의 20% 이상, 프랑스 우라늄 수입량의 15%를 차지한다.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니제르가 우라늄 수출을 중단해도 공급처가 매우 다각화돼 있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쿠데타가 장기화할 경우 유럽 국가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21년 기준 유럽의 우라늄 수입량 상위 3개국은 니제르, 카자흐스탄, 러시아였다.

프랑스 파리 싱크탱크 자크 델로르 연구소의 푼빈 응우옌 에너지 전문가는 "니제르의 긴장 상황이 악화하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우라늄에 대한 제재를 채택하는 것을 놓고 난처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U는 아직 러시아산 우라늄을 제재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쿠데타 벨트'에 포함되는 니제르 이웃 국가 말리와 부르키나파소가 니제르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자신들에 대한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가 군대 동원을 언급하며 니제르 군부를 압박하자 이들 국가는 공동 성명을 통해 "니제르에 대한 모든 군사적 개입은 우리 두 나라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고 대응했다.

노숙자의 '천국' 美 캘리포니아, '지옥'으로 변하다

미국 최악의 범죄도시로 악명 높은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의 요즘 핫이슈는 주 당국의 대대적인 '틴하우스(tin house·양철집) 철거사업이다. 틴하우스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고철·폐목재·폐차 등을 열거설기 엮어 만든 미국판 '판잣집'이다. 이 도시 도심과 부도심의 공공부지나 빈 땅은 어김없이 틴하우스 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조선·철강·기계·전자공업이 융성했던 오글랜드는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쇠퇴로 몰락했다. 실직한 시민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상당수는 노숙자로 길거리를 전전하게 됐다. 꽤 큰 식당 요리사였던 존 제노스코씨도 10여년 전 실직한 뒤 오글랜드 고속도로 아래에 양철집을 짓고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 개인 뉴스 주지사가 전격 실시한 '노숙자 제거주 프로그램'에 따라 양철집은 철거됐고, 그는 제거주 단지로 강제 이주해야 했다. 새 거처에는 침대 하나, 접시식 의자, 책상, 미니 냉장고가 전부인 작은 직사각형 나무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캘리포니아주가 오글랜드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등지에서 대대적인 노숙 시설 철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주 당국이 행동에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노숙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겠다는 의지에서다. 노숙자에게 연중 온화한 날씨만큼 큰 축복은 없다. 거기다 사회적 약자에게 온정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 미국 전역의 노숙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는 지난 한 해 동안 노숙자가 전년 대비 9% 포인트 증가했다. 구시가지는 아예 이들의 차지가 됐다. 중산층은 주변 외곽도시로 빠져나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다. 한때 가장 안전한 미국 도시로 꼽힌 샌프란시스코의 도심도 텐트와 쓰레기 더미, 펜타닐과 코카인에 취한 노숙자 무리로 도배됐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지가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처럼 변한 것이다. 전형적인 중산층 도시로 꼽히는 샌디에이고마저 노숙자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서 도시 외관이 바뀌었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체 노숙자의 절반가량이 캘리포니아주에 머물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일정한 주거공간 없이 거리를 떠돌거나 자동차, 텐트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주 당국 관계자는 NYT에 "노숙자들이 많아질수록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진다"라면서 "그동안의 관대한 정책으로는 도시 황폐화를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019년 취임해 노숙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친 뉴스 주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강경책을 진두 지휘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전역에서 노숙자 집성촌을 전면 불법화했고, 오글랜드 샌프란시스코 LA에선 전원 제거주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NYT는 "지금까지 LA에서만 1만4000여명의 노숙자가 강제 퇴거됐다"면서 "한때 노숙자에게 '천국'으로 각광받던 캘리포니아는 이제 '노숙자의 지옥'이 됐다"고 전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73. 박안득 (1905-?)

박안득은 세계 제2차 대전 징집 서류에서 1905년 5월 19일에 태어났다고 적었는데 1940년과 1950년에 실시한 연방정부 인구조사에 적힌 나이로 보면 1907년이나 1909년에 태어난 것처럼 간주할 수도 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제물포 곧 인천이었다. 그는 단신으로 1933년 3월에 일본 고베에서 아사마 마루에 승선하여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이주 초청을 받은 회사가 없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으나 영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고 선박 승객 서류에 적혀 있는 것과는 달리 박안득은 라나이섬의 한 가운데 있는 라나이 시티에 있는 하와이 파인애플 회사에 취직하여 참고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하와이 사람들은 박안득을 앤드루 박으로 불렀다.

박안득은 1930년도 말에 안점순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1918년경에 하와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듬해에 가정을 둔 그의 연봉은 1,080달러였다. 그와 그의 가정은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파송한 이관목 목사가 시무하는 라나이 한인교회에 출석했다. 1939년에 이들 사이에 딸 린다가 태어났고, 1942년에 둘째 딸인 코렌이 태어났다.

라나이 한인감리교회를 목회하던 이관목 목사 부부가 소천하였으므로 하와이 선교연회는 박중수 목사를 4개월간 임시 목사로 본 교회에 파송하였다. 그런데 1944년 3월에 모인 제39회 하와이 연회에서 윌리엄 H. 프라이 감리사가 정식 담임 목사를 파송할 때까지 라나이 한인교회에 출석하던 박안득을 박중수 목사의 뒤를 이어 라나이 한인교회 전도사로 파송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하와이 선교연회 절제위원회 위원으로 정의조와 안창호 등과 함께 선정했다. 그해에 라나이 시티에는 미국

북감리교 산하 교회로는 한인교회뿐이어서 박안득을 파송하는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안득은 하와이 선교연회 파송 전도사로 라나이 한인감리교회를 목회했다.

그해 4월에 감매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찬양대를 인도하였다. 그달에 있는 성금요일 저녁에 박

득이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찬양대는 특별 찬송을 준비하여 연주했다. 그달에 풍금 반주자 한베티의 매형인 침애니가 주일 학교 교사로 임명받아 가르쳤다. 성탄절 이브였던 12월 24일 저녁 6시 반에 모 교인이 예배당에 모인 가운데 주일학교가 성탄 행사를 연출하여 크게 환호했다. 이날 김성수가 예배당 내부를 단장하였고, 박 부인과 청 부인이 순서를 주장했으며, 부인회가 예물과 저녁을 준비했고, 이정근이 성탄 헌금위원으로 수고했다.

1945년 정월에 이곳 한인들이 노동하는 농장의 농주가 라나이 한인교회 예배당을 무료로 수리해 주었으므로 모 교인이 크게 감사했다. 본 교회에 있는 봉사기는 라나이에 오직 하나뿐인데 푸른 별이 10개 다 달렸다고 한다. 그달에 박춘식 부부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 모두 기뻐했다.

그해 3월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에 박안득이 소속된 하와이 선교연회 절제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와이에 한 사람에게 일주일에 946g의 음주만 허용되었는데도 사고와 사건이 빈발하였는데 허용량을 인상하려는 사회적

정부에 넓게 접촉하여 금주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945년 2월에 보고된 대로 한 해 동안 5명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고 학습 교인 2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2명이 이명해 나갔거나 사망하여 활동 교인이 31명이었으며, 등록된 교인은 36명이었고, 주일 학교에 평균 20명이 출석했고, 이중 아기가 10명이었다. 그리고 건물 비용으로 375달러와 건물 유지비로 25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사례비로 하와이 선교연회가 보조한 600달러와 교인들이 헌금한 240달러를 합하여 840달러를 지급했다.

박안득은 1946년 1월에 모인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3년간 활동해온 절제위원회에서 사회행동위원으로 임명받았다. 이듬해 2월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감리사 윌리엄 푸



놀물루 웨슬리 감리교회에서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한 바로는 지난 한 해 동안 2명이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며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공부반에 등록된 학생이 12명이었으며, 활동 교인이 32명이었으며, 비활동교인이 6명이었고, 2명의 교인이 이명해 나갔고, 교인 한 명이 사망하는 슬픔을 맞았다. 주일학교에 직원과 교사가 3명인 가운데 유아가 9

1933년 3월 일본 고베에서 호놀룰루에 도착 1944년 하와이 선교연회 파송 전도사로 라나이 한인감리교회 목회 1945년 2월 소속 하와이 선교연회 절제위원회 두 가지 제안

안득이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십자가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는데 모 교인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를 후 부활주일 아침에 주일 학교 주최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며, 주일 학교 학생에게 달걀에 색을 칠해서 나누어주고 부활의 의미를 심어 주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던 김원섭이 건강이 좋지 않아 자택에서 요양하였고, 하명선은 뇌출혈로 이곳 병원에 입원하여 걱정이 많았다. 박안득의 부인이 그해 8월에 주일학교 소년반을 맡아 가르쳐 교인들이 감사했다. 라나이 병원에 입원한 하명선이 그해 11월 초에 농주의 배려로 양로원에 들어갔는데 교인들이 이를 주선한 농주에게 감사하였다. 한기원의 딸 한베티가 그해 8월에 다시 풍금 반주자가 되었다. 그해 11월에 추수감사절에서 박안

득이 각 교회가 지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각 교회 목회자가 교인의 자녀들에게 미니 로우가 쓴 그레이 버니의 어린이와 그레이 버니의 어린이가 교육이나 건전한 영화인 '수효를 셈하는 노비'를 사용하여 여사라도 무절제의 악이 침범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과 일 년에 두 번 절제 주일을 지정하여 지키라고 강력하게 당부하였다.

1945년 2월에 박안득이 소속한 하와이 선교연회 절제위원회는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목회자가 주선하여 금주에 관한 영화를 교회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하고 금주에 관한 팸플릿의 소리를 많이 구해 청소년의 손에 쥐어주고 음주는 몸을 해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며, 둘째, 금주의 행복과 기쁨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하와이 정부와 미국 연방

라이 박사는 박안득이 재능 있는 아내의 내조를 받아 지난 한 해 동안 단호하고 용감하게 교인들과 함께 교회 목회에 임했다고 칭찬하였다. 그해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세 명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고, 어린이 세례와 입교 받은 사람이 두 명이었으며, 성인 10명이 세례를 받았고, 등록된 학습 교인은 12명이었고, 등록된 세례 교인은 43명이었다.

박안득은 1950년에도 라나이 한인교회 전도사로 임명받았다. 그는 그해에도 라나이 파인애플 회사에서 일주일에 40시간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그의 아내 안점순도 함께 근무했는데 언제부터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박안득은 1952년에도 전도사로 임명받아 설교 목사로 라나이 한인교회에 파송을 받았으며, 안창호 등과 함께 하와이 선교연회의 전도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해 초에 호

명이었다,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12명이었는데 평균 10명이 출석했다. 주일학교를 위해 75달러가 소요되었고, 기타 45달러를 운영비로 사용했다. 교인이 헌금한 액수가 120달러였으므로 활동 교인 1인당 3.75달러를 헌금한 셈이다. 사용하던 예배당은 당시 시가가 300달러였다.

1953년 2월에 보고한 수입 결산이 지난해의 절반인 45달러였으므로 많은 교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였다. 1955년 3월에 하와이 선교연회 연회관계위원회가 박안득의 회원직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1958년 이후 하와이 선교연회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는 1944년 이후 1958년까지 14년간 라나이 한인교회 선교사역을 감당했다고 보인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저녁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7:30(영성)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89, www.lsgc.co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든단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714) 772-7777, facebook.com/srs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라미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 저녁예배: 오후 7:00 영어권 (중·고·대): 오후 7:0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446-6202,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7:30(대학부),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behel@kbc.org / www.kb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 www.wmccs.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p-Rev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6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부)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8, Ce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북은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역자 3. 영성성장 4. 가정사역 5. 영성사역 6. 네트워킹사역 www.epifamily.org Tel: (213) 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령강화: 오후 8: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7:30(대학부), 6:00(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만해사경기도: 365일 24시간 온론 Tel: (714) 446-6202, www.graec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장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ccalsamsungch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s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일 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히를스삼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 "어침같이 일어나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I. 존 오웬과 그의 작품

청교도 시대의 신학과 신앙을 탐구하는 많은 이들이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을 가리켜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로, 종교개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오한 신학 저서를 방대하게 내놓은 저술가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 신학자들의 황태자, '칼빈에 버금가는 학식을 가진 천재' 그에 대한 화려한 수식어가 말하듯 그는 청교도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12세에 옥스퍼드의 퀸스 칼리지에 진학해서 고전, 수학, 철학, 신학, 히브리어 등을 수학했다. 오웬은 십대 때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을 공부했다. 26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41년 동안 8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의 모든 저술들은 주옥과도 같이 귀한 고전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 그는 신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신실한 목회자요 은사를 받은 대설교자로, 옥스퍼드 그리스도 교회의 감독이며, 옥스퍼드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그리고 크롬웰 경의 군복으로, 한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신학적 저작을 낸 저자이며,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 인격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수많은 고전에 통달하고 헬라어와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으며, 히브리어와 합비들에 대한 지식에도 깊이 몰입하며 천재성에 있어서 널리 인정받은 인물이다.

존 오웬의 작품에 대해 필자가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 그의 저술을 중심으로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1) 1643년 오웬은 예정교리, 원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죄의 범위, 구원에 있어서 인간 의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검토하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자들을 논박하는 고전적인 칼빈주의에 대한 강력한 해설을 담은 [알미니우스를 드러냄]이란 책을 출판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2) 그는 교구민들에게 교리문답을 교육시키는 일에 탁월했으며 교리문답 책자를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해 한 권씩 중 두 권을 저술하기도 했다.

3) 1640년대 설교와 저작들을 통해서 그의 명성은 급격히 퍼져 나갔으며 30대 초반에 이미 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 왔다. 그는 올리버 크롬웰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27절을 설교하여 큰 감명을 주었고 그로 인해 궁정목사로 또한 영국 의회가 인정한 설교자로 의회에서 설교하기도 하였다.

로 의회에서 설교하기도 하였다.

4) 오웬은 일찍이 당대의 소장 학자로서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논쟁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1642년 [알미니안주의의 해부](The Display of Arminianism)을 작성하여 런던에서 다음 해에 출간하여 철저한 칼빈주의의 신학을 세우고 알미니안주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력하였다.

5) 오웬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1646년 의회에서 설교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날 오웬은 자신의 회중 교회서적인 의지를 강하게 선포하였다. 오웬의 이날 설교는 이미 자신의 교회정치관을 잘 드러낸 저술 [교회정치에 대한 사상들](Thoughts on Church Government)속에 포함되어 출간되었다. 1646년까지 예섹지방의 포드햄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후에 열한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예섹지방의 코게샬 장로교회에서 포병을 받았지만 회중교회를 개척하였다. 코게샬 (Coggshall)에서 회중교회 목회를 하던 1648년 오웬은 백스터(Richard Baxter)와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의 저술이 상당히 반율법주의 경향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자들 사이에 아주 흔하게 벌어지던 논쟁이 바로 반율법주의 논쟁이다. 오웬은 '구원은 거룩한 예수 안에서의 선택이다'(salus electorum, sanguis Jesu)를 발표하였다.

6) 1648년 찰스 1세 국왕이 의회파에 의해서 살인자요, 폭군이라는 선고를 받고 처형된 바로 그다음 날, 의회에서 설교자로 초빙을 받아 매우 인상 깊은 설교로 감동을 주었다. 예레미야 15장 19-20절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격려를 받는 의로운 열정"(Righteous Zeal Encouraged by Divine Protection)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는 특히 종교의 잘못이나 실수는 사회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한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세상의 권세와 국가의 권력이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여서는 안된다는 신념이 담겨있다. 물론 세상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세속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리스도의 교회'(Christ's church) 교수회장으로 선임된 오웬의 탁월한 행정력은 눈부신 업적을 남겨놓았으니, 최고의 학자들을 초빙하여 대학을 맡기고 경건과 신앙심의 고취는 물론, 일반 교육수준을 크게 높이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많은 설교와 저술을 발표하였다. 그는 종교 자유와 관용을 강조하였다. 유대인들을 다루는 일에 관한 회의에도 참가하였고,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를 왜곡한 쏘씨니언주의자(Socinianism)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론이 만족설을 약화시키는 입장에서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배척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7)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의 시절에, 그는 이 시절에 [성도의 견인], [그리스도의 대속], [죄 죽임], [삼위일체와의 교제], [분리], [유혹], [성경의 권위]에 대한 주요 작품들을 포함한 수많은 저서들을 출판했다.

8) 오웬은 크롬웰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을 반대한 것으로 호국경 시절 말기의 크롬웰로부터 호의를 잃게 된다. 1665년 그는 자신의 집에서 비밀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피신하는 동안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사편 130편 강해] 그리고 방대한 [히브리서 주석]의 첫 권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9) 1674년 오웬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고전이 될 [성령론]을 출판했고 2년 후 아내와 사별하고 18개월후 미망인 도라시와 재혼하였다. 오웬은 말년에 천식과 담석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 질병들로 인해 설교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저술에 매달려 [칭의]와 [영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묵상] 등의 주요 작품들을 쏟아 내기도 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노력을 다해 지성적으로 헌신하였는지! 그는 자신이 죽기 하루 전날인 1683년 8월 23일 그의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에 썼다. "나는 이제 내 영혼이 사랑했던 분, 아니 오히려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위안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교회라는 배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선장이 그 배에 계신다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가련한 사람 하나가 없어진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며 소망으로 잠고 기다리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참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견고히 서 있습니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노년기 준비

한국에 몇 주간 머물고 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아픈 언니를 돌보러 온 것이어서 친구들을 만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친구가 연락을 해서 다섯 명의 대학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났다. 한국에서는 은퇴 연령이 낮아서 이미 세 명의 친구는 은퇴를 했고 한 친구만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사회적인 활동도 했던 친구들이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편한 마음으로 노년기를 맞을 준비가 된 친구보다 외로움, 지나간 삶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친구가 더 많다. 오랫동안 혼자 산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실버 타운에 들어가야 할지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딸하고 대화를 하다가 딸이 엄마도 은퇴하면 집 용자 상황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집을 팔고 노인들이 사는 콘도 미니엄으로 이사를 하고 여유있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는 나쁠 것이 없는 말인데 나는 버럭 화를 냈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짜증을 냈다. 자주 보던 할머니가 안보여서 물어보면 돌아 가셨다고 하고, 앰블런스 소리가 들리면 또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마음 쓰이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항변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등 삶의 활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내 생각은 노년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은연 중의 표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노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노년기를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유엔(UN)에서 처음으로 고령화라는 용어가 채택된 이후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고 저출산, 의학기술 발달, 생활환경의 개선, 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시대에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활용해서 다가올 노년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노년기를 끄는 현상 중 하나는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담소하거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다. 노인에 대한 복지의 일환으로 지하철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때문에 한국의 노인들은 지루하지 않은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듯하다. 서울과 가까운 춘천 같은 곳에 지하철역을 타고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바람도 쐬고 오래된 만원이 있으면 되고 온양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려면 이만 원이면 된다고 한다. 동네마다 있는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도 많아서 육십이 갓 넘는 후배의 아내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다. 입주일에 맛사를 가야금, 유튜브 동영상 만들기, 영어, 일본어 등 클래스를 듣고 있는데 한 과목 수강료가 세 달에 삼만원이라니 평생학습의 의미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에도 시니어 센터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와 야외 활동들도 있지만, 한국의 노인 복지가 그런 면에서는 앞서 가는 것 같다.

노년기를 맞을 준비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을 골고루 포함해야 한다. 신체적인 노화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겠고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면에서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름다운 노년기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 같다. 지나간 삶에 대한 아쉬움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돌릴 수 있는 믿음, 나의 모든 삶의 순간 순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노년기를 준비한다면 나에게 찾아 오는 노년기를 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an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Lists various churches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아기 판다의 탄생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가장 흥미로운 뉴스는 아기 판다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다.

한국의 한 동물원에서 암컷 판다와 수컷 판다가 교배하는데에 성공을 했고, 그 결과로

쌍둥이 판다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다.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겨우 3일 뿐이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면 새끼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판다는 혼자 살아가고, 내 영역에 다른 판다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판다를 교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동물원의 사육사들이 판다를 교배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다. 암컷 판다가 우리 밖에 나간 틈을 타 수컷 판다를 잠깐 암컷 판다의 우리로 인도한다. 그러면 수컷 판다의 냄새가 이 우리에 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암컷 판다가 수컷 판다에 친숙해지도록 만드는 식이다. 그렇게 몇 명의 사육사가 정성을 다해 교배에 성공했는데, 성공하고 나서 보니 이 새끼

판다가 쌍둥이인 것이다. 그러나 이 동물원에는 겪경사였던 것이다. 현재 전세계에 생존하는 판다가 겨우 2,000마리 정도라고 하니 그 기쁨은 참으로 크다. 이 판다의 출산이 다가오자 동물원의 사육사들은 2명씩 돌아가며 24시간 판다 곁을 지키다. 그리고 그렇게 새끼 판다 두 마리가 태어나자 하나는 어미의 품에, 그리고 하나는 인큐베이터에서 기른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새끼에게는 어미의 초유를 짜다가 젖병을 이용하여 그 젖을 먹인다. 쌍둥이가 어미 품과 인큐베이터 속에 번갈아서 있을 수 있도록 사육사들은 시간을 재면서까지 철저히 판다를 관리한다. 이렇게 10명이 넘는 사육사들이 지극 정성으로,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판다를 돌본다. 귀하고 신기한 생명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판다가 자라가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판다는 그저 생김새가 독특한 곰일 뿐이다. 다른 곰이 검거나 갈색인 반면에 판다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독특한 무늬를 가졌을 뿐이고, 보통의 곰이 잡식성으로 이것 저것 닥치는 대로 먹는 난폭한 동물인 반면에 판다는 주로 대나무를 먹어서 덜 난폭한 동물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판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 6:26) 하고 말씀하신다. 10명이 넘는 사육사들이 새끼 쌍둥이 판다를 돌보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수천수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

고 돌보고 계신다. 그뿐이 아니다. 판다의 성장을 유튜브를 통하여 바라보는 수백만의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천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큼 내 옆에 있는 이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우리는 귀한 존재이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지나치는 많은 영혼들 역시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천하와도 맞바꾸지 않으실 영혼이다. 그 영혼을 귀히 여기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자. wmclakim@gmail.com



제 70주년 한국전 정전기념식 및 기념비 헌정 27주년 기념식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메모리얼 공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거행됐다

제 70주년 한국전 정전기념식 및 기념비 헌정 27주년 기념식 성료

"2013년부터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로 지정"

제 70주년 한국전 정전기념식 및 기념비 헌정 27주년 기념식이 지난 7월22일(토) 오전 10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메모리얼 공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은 많은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전에 참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1953년에 전쟁이 끝난 이후, 미 국방부는 약 7,500명의 미국인들의 시신이 실종되었다고 추정했다. 미국의 젊은 청년들은 동맹국인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무수한 피와 땀을 흘렸고, 그들의 고결한 희생을 반석으로 대한민국이 기적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 현재 세계 속 굳건한 국가로 거듭났다. 비록 해가 지날수록 노쇠하거나 사망

하여 점점 줄어드는 참전용사들의 참석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해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더치넬슨 한국전 참전용사 지부와 남부 콜로라도 한인회를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여러 단체와 많은 지역사회 리더들이 행사에 참여해 자리를 빛냈으며 지역사회 리더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6.25 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군과 함께 유엔 참전 22개국의 195만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한 외에도 미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전후 세대에게 동맹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재정

립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기 위해 2013년부터 7월 27일이 국가기념일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됐다.

이날 기념식은 와이드필드(Widefield) 고등학교 학생의 장대의 양국 국기입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마이크 탑승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사무총장은 "남부콜로라도 한인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잊지 않고 보는 행사를 준비해주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올해에만 참전용사 6분이 사망했으며 현재 16명만 생존해 있다"고 안타까운 사실을 전했다. 더치 넬슨 챕터(Dutch Nelson Chapter)의 회장인 짐 맥키피 명예영사는 이날 참석자들을 소개하며 참전용사들과 행사에 참여해준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이후 화환 증정식도 진행되었다. 특별히 행사에는 덴버와 미 중서부지역을 주관하는 실베인 파비(Sylvain Fabi) 주 덴버 캐나다 총영사가 참석해 "캐나다의 군인들 또한 한국전에 참전해 피를 흘리며 열심히 싸웠다"고 말하며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동맹관계와 평화로운 외교미래의 지평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은 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했던 전쟁시기 일화들을 이야기하고 학생 의장대와 함께 군가를 불렀다. 또한 손순희 한인합창단의 단장이 이날 행사에 참여해 다가오는 10월 참전용사를 위한 콘서트 가 있으니 참여해달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더치 넬슨 챕터에서 준비한 샌드위치를 먹고, 남부 콜로라도 한인회에서 준비한 과일을 함께 즐기기도 했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

다. (기사: 콜로라도타임즈, 정리: 박준호 기자)

BBC 기후변화...

(1면에서 계속)

이탈리아 기상학자인 줄리오 베티는 BBC에 "폭염은 매년 그 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후 변화의 신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폭염이 없는 여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평범한' 여름은 보기 드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가 불행하게도 새로운 정상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폭염·호우 특보 동시에

최근 '폭염'과 '극한 호우'가 하루 동안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0일 경기도 안성의 낮 최고기온이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9도까지 치솟았다. 31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1~35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일부 지역에는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서울에서도 주말 사이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엔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며 폭염경보와 호우

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 서남권 등에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폭염과 폭우가 하루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대기의 상층과 하층 기온 차가 극명해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겹겹이 감싼 뜨거운 공기가 대지를 달구고 결국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런 날씨는 과거에 비해 확실히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지만, 앞으로도 폭염 속에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변덕스러운 날씨, 당분간 계속

폭염에 폭우까지 겹치는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제6호 태풍 '카눈'이 동중국해까지 북상한 뒤 정체할



플레루 FleuRue 김성국 목사 신간 컬럼집
당신은 어떤 시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입니다. | 다윗이 목동으로 지내던 시간
카이로스: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입니다. |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시간
플레루: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된 시간
하나님은 크로노스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카이로스만도 감사한데 플레루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크로노스를 지난다고 하여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플레루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시간 플레루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사랑 가득한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문장마다 목사님의 호흡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보이기도 합니다.
류영렬 목사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한인봉사센터, 유방암 무료 검진

KCS(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40~79세 여성(보험 가입자), 50~79세 여성(보험 여부 무관)을 검진일로부터 1년이상 된 이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무료 검진을 진행한다. 일시는 8월 12일(토) 오전 9:00~오후5:00이며 장소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이다.

▲예약 및 문의: (917)285-4164

제1회 코리안 디아스포라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한 VNC (Vision Network Camp)

다음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ACE(사무총장 장규준 목사)에서 “제1회 코리안 디아스포라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한 VNC (Vision Network Camp)를 2023년 8월 1일(화)~21일(월) 3주간 개최한다. 정치, 경제, 교육중심지 탐방, 미주 대표 한인교회 탐방, 신앙유적지 탐방, 다양한 문화 체험, 맨하탄 전도 훈련 및 대학 청년수련회 준비 및 개최를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사무총장 646-266-0039, Adullam69@gmail.com

뉴저지장로교회, 살롱아기학교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안 목사)는 아기와 엄마(혹은 아빠)가 함께 믿음이 자라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을 갖고자 ‘살롱아기학교’를 가을부터 연다. 일정: 9월 5일(화)부터 10월 19일(목)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총 14회), 오전 10:00-11:30 교육대상: 15개월-40개월 영유아 (자녀 1명당 보호자 1명 동참), 수업료: \$490 장소: 뉴저지장로교회 오클랜드 예배당(222 Ramapo Valley Rd, Oakland, NJ 07436)

▲문의: 이승희 전도사 babyschool@askschool.org

뉴욕교협,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

예배공동체, 교제공동체, 선교공동체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7월31일(월) 오전 10시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준열 목사(할렐루야 부준비위원장) 사회로 시작된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는 살롱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후 대표기도 이지용 목사(영접분과 위원장), 성경봉독 김택용 목사(협력위원), 강의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 순으로 진행됐다.

권준 목사는 ‘건강한 교회의 3대 원리 (요 13:34-35)’라는 제목을 통해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나와 너의 관계(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나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

동체)이다”라고 말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주시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섬기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교제와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되는 진정한 교제의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선교사로서 지금 있는 곳에서 선교적 공동체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상 피어선총회는 피어선신학교 이상환 목사를 통해 이준성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승례 목사(총무)의 광고 후 방지각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중동선교 세미나 참석자들 사진촬영 했다

뉴욕장로교회, 중동선교 세미나

“내 안에 깨진 렌즈에서 하나님의 안경으로”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7월29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제이홍 선교사를 강사(로드마스터 대표)로 초청하여 중동선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진 목사는 중동선교세미나를 개최한 배경과 강사를 소개했다.

김목사는 “지난 4월 1세대 어르신들로 구성된 단기선교팀이 두바이를 다녀오면서 제이홍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마침 뉴욕 방문 계획이 있던 제이홍 선교사를 초청하게 되었고, 제이홍 선교사를 통해 ‘중동지역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지역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 시간을 통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이 확장되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이홍 선교사는 중동선교의 전문가로서 로드마스터 대표, 핏백 트리니티 이슬람연구소 부소장, 아랍 에미리트 지역의 문화센터(KUACA) 회장, 대학(GTEP)에서 중동지역 관련 강사, 아부다비 은누리 선교협력목사, GMP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이홍 선교사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하나님이 청지기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들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일을 하는 퀴즈메이커가 되라”고 강조했다.

선교위원장 박상우 장로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만의 세미나가 아닌 지역교회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는 취지로 개최했는데 14개의 교회가 참석해 주었다”고 기쁨을 전했다.

이 세미나를 위해서 두바이로 선교를 다녀온 팀들이 식사를 준비했다.

(홍현숙 기자)



2023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첫째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교협, 2023 할렐루야복음화대회 개최

강사 권준 목사, “교회여, 일어나라!”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준성 목사)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 7월28일(금)부터 30일(주)까지 사흘간 하크네시아교회(전광성 목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Let the Church Arise!)란 주제로 2023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개최했다.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임지윤(어린양개혁교회)목사가 할렐루야 어린이 복음화대회를 진행했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대회를 통해 “뉴욕교협 50년 역사 동안 할렐루야대회가 뉴욕복음화를 위해 개최되고, 그동안 대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음을 기억한다. 이번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집회 기간 동안 뉴욕과 뉴저지 팬플트 찬양선교단(단장 존 우), 뉴욕크로마하 프연주단(단장 박영희 권사), 두나미스 찬양팀, 섹스폰 듀엣 신우철 목사 부부, 권사 합창단(단장 이은숙 권사),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전병삼 장로)이 특송과 헌금 특주 등을 담당했다.

첫날 집회에서 권준 목사는 “교회여, 성령으로 타오르라!(사도행전 2:42-47)”를 주제로 설교했다. 권 목사는 “이전 년 전에 시작된 사도행전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충만은 예수님과 하나되는 사건이며 성령의 역사로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교했다.

둘째 날 집회에서 권 목사는 “교회여, 복음으로 변화하라!(마태복음 9:14-17)”를 주제로 교회의 변화에 대해 설교했다. 권 목사는 전형적인 전통교회

인 형제교회에 부임하여 일어난 변화의 경험을 나누었다. 권 목사는 “십자가 가만히 있어도 되보라는 변화가 있다”며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전통적인 교회는 불편한 것을 싫어하기에 변화가 어렵다. 진정한 본질인 변하지 않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날 집회에서 권 목사는 “교회여, 사랑으로 일어나라!(요한복음 21:15-17)”라는 설교를 통해 “형제교회에 부임하고 교회의 변화에 대한 경험의 중심에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목회라는 깨달음이 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며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교회는 하나되며 부흥케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날 순서에서 어린이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강사 임지윤 목사의 인도로 찬양했으며 어린이대회를 도운 차세대 스태프들을 중심으로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감사패 전달식에서 할렐루야대회 강사 권준 목사와 어린이대회 강사 임지윤 목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앞서 열린 뉴욕선교대회 준비위원장 김경열 목사와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 박태규 목사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번 할렐루야복음화대회 및 세미나 장소로 섬긴 하크네시아교회 전광성 목사와 뉴욕선한목자교회 박준열 목사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뉴욕교협은 교협산하 청소년센터에 \$6,000, 복미원 주민선교회 박준열 목사에게 \$3,000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재상 기자)



미국에 도착한 여주지역 재활센터에 있는 청소년 12명과 스태프 3명

뉴욕로고교회, 한국 청소년 서머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한국 청소년들 초청, ‘하나님 찾기’ (Finding God)가 숨은 주제

뉴욕로고교회(임성식 목사)는 7월26일(수)부터 8월 14일(월)까지 한국 청소년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서머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을 품은 아이들,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임성식 목사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선진문화 체험과 대자연의 경험을 통한 기독교 신앙 함양과 함께 어울리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앞세우고 호연지기를 키워 향후 더욱 학업에 전념하는 등 전형적인 삶의 자세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인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진행한다”며, “이번 캠프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 찾기’(Finding God)라는 숨은 주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여주지역 재활센터에 있는 청소년 12명과 스태프 3명이 26일(수)에 뉴욕 공항에 도착했으며, 뉴욕로고교회는 참가자들의

항공료 및 숙박 및 식비, 그리고 여행비 일체를 부담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5만여 달러로 로고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모금을 했다.

프로그램 일정은 미국 도착 후에는 뉴욕의 명소 탐방이 먼저 진행된다. 이어 보스턴 지역 아이비리그 대학, 청교도 관련 유적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탐방이 이어진다. 8월 3일부터 10일 동안 뉴욕에서 LA까지 대륙횡단이 이어진다. 횡단하며 그랜드 캐니언 등 여러 미국 국립공원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미대륙 서부 끝에 도착한 후에 8월 14일 LA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번 한국 청소년 초청 서머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후원신청은 임성식 목사(718-708-9944)나 신영 전도사(617-780-6521)에게 하면 된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회

콜롬비아 단기선교 10월 2일부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이스라엘 목사) 7월 월례회가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뉴욕풍성한교회(박성원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사회 한필상 목사, 대표기도 전희수 목사, 설교 박성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성원 목사는 시편 90:10-17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2부 회무는 사회 회장 박이스라엘 목사, 개회기도 이종명 목사, 토의 및 보고, 업무보고 행정간사 유원정 사모, 아동후원금 보고 회계 한준희 목사, 광고 서기 한필상 목사, 순회기도 권계덕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올해 단기선교지로 결정된 콜

롬비아 선교가 10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진행되며, 8월 15일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이번 선교를 통해 기아대책에서 지원한 학교건축 기공식과 후원하는 아동가정을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피종진 목사 8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화) 오후 1(화)~2(수)	서울 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인천 소망교회 (최승리 목사) 010-6414-3307 주최: 미라클교회교회 (대표회장 김수아 목사)
3(목) 저녁 4(금) 저녁 6(주말)~8(화) 9(수)~11(금) 10(목) 오후 12(토) 오전	세종평화회의총선 (원장 피종진 목사)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황 목사) 010-8331-3431 마산 장원세움교회 (이경호 목사) 010-5692-3775 인천 행복로가교회 (최규석 목사) 010-5278-0065 안양 갈매신기도원 (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분당 주영광교회 (전옥란 목사) 010-2445-1691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원 대표총회장 (남보석 목사)
13(주일) 저녁 14(월) 오전 14(월) 오후	서울 새샘교회 (신규식 목사) 010-6725-7040 서울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한일신기도원 (원장 이영근 목사) 주최: 예수사공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조유식 목사) 010-9957-6669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진안군 임내엘 병천수양관 (원장 이광순 목사, 행정목사 박복주 목사) 010-4132-1191
15(화) 오후 16(수) 오전·후 17(목) 오후·저녁 18(금) 오후·저녁 19(토) 오전	강남침례신기도원 (원장 최동인 목사) 교무부장 김진석 목사 010-3790-2462 대구 글로벌 신유복성회 (원장 강은숙 목사) 담임 박종일 목사) 010-3670-8999 KK, Blessing MT
20(주)~22(화)	제 232차 해외성회 (232nd Overseas Assembly) 필리핀 (Philippines) Baguio, 200여 교회 목회자 연합 성서훈련 준비위원장 (윤상오 선교사) 010-7574-5164 주최: (사)네미아 부흥사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23(수)~25(금)	필리핀 (Philippines) Launion (북부 루손지역) 영성훈련사 주최: (사)네미아 부흥사회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주관: 세계선교전략사령부 (윤상오 선교사) 010-7574-5164
28(월)~29(화)	베트남 (Vietnam) Overseas training Session (사)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이준성 목사) (032) 219-9191
30(수)~9.1(금)	베트남 (Vietnam) Overseas MT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크렌셔장로교회에서 열린 시니어찬양축제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크렌셔장로교회, 시니어 찬양축제 가져

“우리는 웰빙이 아닌 웰다잉을 이야기 하자”

크렌셔장로교회(담임 한현중 목사)가 29일(토) 오후 4시에 ‘어부들과 함께하는 시니어 찬양축제’를 가졌다. 한현중 목사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젊은 사람들이 울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랐던 사실은 어르신들 대부분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분들인데 노년에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될 분들이라는 생각에 멋진 설교를 하기보다는 성경말씀 속에 녹아있는 복음을 중심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노년의 때에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LA 송실 OB 남성합창단 출신으로 집회를 이끈 방관수 선교사, 이모세 목사, 박병권 목사는 이날 진솔한 간증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뜨거운 찬송과 찬양을 부르며 집회를 이끌었다.

이날 집회를 이끈 남성 트리오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I Love you Lord’,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내 평생에 가는 길’, ‘사명’, ‘오 신실하신 주’, ‘살아계신 주’ 등의 찬양을 이날 교회에 모인 시니어 청중들과 함께 불렀다. 이모세 목사는 “저희 구성원이 만난 지 33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같이 울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아버지가 같아서이다. 선교는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감을 고백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세상은 ‘웰빙’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것인지 걱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웰다잉’, 어떻게 하면 믿음과 은혜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서서 천국에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제는 한현중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2차 OC영적대각성새벽기도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날마다 깨어 있어야”

차세대목회자 21인초청 제2차 OC영적대각성새벽기도회가 7월31일(월)부터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시작되었다. 심상은 목사는 “이 지역을 위해 열심을 다해 부르짖는 새벽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OC교협, OC장로협의 회, OC여성목사회, OC전도회 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오는 8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도회 첫날집회는 갈보리선교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한창민 전도사 합심기도인도, 김용진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 대표기도, 심상은 목사(OC교협 회장)의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 하사랑교회)가 ‘여호와와 도를 지켜(창 18:16-3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원석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위대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대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의와 공의가 없어졌다. 미국의 타락의

강도는 교회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LGBTQ에 들어가는 자들이 미국의 7%이며 2300만명 정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오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은 목사가 사색마다 부여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한 불씨가 되어지길, △강사 목사님들과 기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하여,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여 이 땅에 치유가 임하기를, △미주의 모든 한인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에 임하도록, △주변에 있는 환우들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 △21일간 참석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길 기도할 것을 당부하며 축도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2차 OC영적대각성새벽기도회 첫날 집회에서 이원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토론토 영락교회가 주최한 2023 교회교육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사진=캐나다크리스천신문)

토론토영락교회 주최 2023교회교육 컨퍼런스 개최

“교회-가정, 연계신앙교육 필요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토론토 영락교회(담임 송민호 목사)가 주최한 2023 교회교육 컨퍼런스가 지난 7월15일(토)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토론토지역 교회학교 교사, 교역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5명의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돼 다양한 주제와 사례들을 다루면서 참석한 100여명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컨퍼런스 개최예배는 안광수 목사(수원성교회, 가정교회마을연구원소 이사장)가 ‘기독교 교육의 목적(엢 4:11-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송민호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며 컨퍼런스가 시작됐다. 첫 강의로는 조은하 교수(목원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가정교회마을연구원소 공동소장)가 ‘행복한 신앙교육을 위한 학습자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 세대와 교사가 함께 감소하고 있다. 다음세대와의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영역으로 교회-가정 연계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교회-가정, 공동체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며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황인성 목사(공명교회 담임, 가정교회마을연구원소 총무)의 ‘공동교회 가정예배, 신앙교육’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공명교회는 두 명의 목회자가 공동으로 목회하고 있는 교회로 함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팀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은 한국일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가정교회마을연구원소 공동소장)가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모든 컨퍼런스 일정을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자마중보기도컨퍼런스

자마중보기도컨퍼런스가 8월9일(수) 오후 2시부터 11일(금) 오후 10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310)995-3936/(903)804-4016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입학설명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2023년 가을 학기 신입생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8월 10일(목) 오전 10시, 그리고 11일(금) 오후 5시 ZOOM(https://us02web.zoom.us/my/orange-worship)으로 진행한다. 입학설명회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 www.ptsa.edu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562)926-1023

나성영락교회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5월(토) 오전 9시에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김인수 교수(전 미주장신대 총장)가 ‘이민교회의 미래와 영락의 정신(환경적 목사의 목회철학을 중심으로)’, 김도일 교수(장신대 교수)가 ‘나성영락교회 제자훈련의 방향성을 위하여(진정한 회심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 문의: (323)227-1400

남가주사랑의교회 2023 여름성령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023 여름성령축제를 ‘광야에서 소망을 노래하라(사 35:1-2)’라는 주제로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11일(금) 오후 7시30분, 12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13일(주일) 1-4부 예배이며 집회기간 어린이 집회도 함께 열린다. 어린이집회 장소는 유아/유치부는 사랑채플(109호), 유년/초등부는 체육관이다.
▲ 문의: (714)772-7777

대흥장로교회 여름바이블 컬리지

대흥장로교회(담임 김정훈 목사) 여름바이블 컬리지가 ‘성경 탐험 교리의 세계’라는 주제로 8월25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 문의: (310)719-2244



제5회 남가주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가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렸다

교협과 함께하는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대회

지금이 부르짖을 때... 기도운동 프로그램 이어져

제5회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가 지난 7월 24일(월) 갈보리 선교교회(심상은 목사) 예배실에서 열렸다. 미국의 회복과 영적 각성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는 오렌지카운티 교계와 함께해 왔다. 특히 오렌지카운티 교계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21일 영적 대각성 기도회” 출정식으로 OC 교협, OC 목사회, OC 장로연합회와 OC 여성 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동참하는 기도회로 모였다. 이날 기도회에 남가주 교협(회장 최영봉 목사)의 회장이하 임원들도 참석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OC 교협 총무 추석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심상은 목사(OC 교협회장, 갈보리선교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심목사는 ‘지금이 부르짖을 때’라고 설교했다. 이어서

중보기도연합기도회 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가 기도가 필요한 미국의 현실과 중요한 기도 사역을 소개하는 비전 메시지를 전했다. 중보기도팀연합기도회 사무총장인 강태광 목사가 진행한 2부 기도회는 10개의 기도팀들이 동참하여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미국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했다. 한편 8월에는 중요한 기도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 오렌지카운티 교협이 주최하는 21일 영적 대각성 기도회가 7월 31일부터 8월 23일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진행되고, 8월 10일부터는 자마가 주최하는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은혜한인교회에서, 8월 한달간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는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중보기도 축제가 열린다.
(정리: 박준호 기자)



주반석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열렸다

주반석교회 창립감사예배 및 서평연 기도회 가져

“신앙과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로 주님의 사명 감당할 터”

주반석교회(Christ Rock Methodist Church, 담임 강현중 목사, 26231 Silver Spur Rd. Rancho Palos Verdes)는 지난 23일(주일) 오후 4시 서부지역 글로벌 감리교단(Global Methodist Church, 이하 GMC)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및 서부지역평신도연합회(서평연) 기도회를 가졌다.

강현중 목사는 “이번 주반석교회 창립 감사 예배는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복음주의 신앙을 지키고자하는 글로벌 감리교회(GMC)가 캘리포니아에 최초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 예배”라고 설명하며 “또한 서부지역 평신도 연합회 기도회는 진정한 감리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참된 진리임을 고백하는 GMC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또한 “주반석교회는 시대와 삶의 방식이 바뀌고 인간의 가치관이 변화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언제나 진리라는 신앙과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짐 한다”고 밝혔다.

강현중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1부 예배에서 립학준 목사(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가

기도, 연합성대가 찬양을 한 후 류계환 목사(한교총 선교총무)는 “오늘 주반석교회 창립은 매우 의미가 깊다. 서부지역과 캘리포니아에 성경적 진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GMC 영적 부흥운동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Keith Boyette 목사가 전한 영상메시지를 시청한 후 신병욱 목사는 ‘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시 133: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신 목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연합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그 복음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연합 속에 임하는 복으로 영생을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의 축복을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주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운데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축복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정관 장로가 권위를 조영진 감독이 영상메시지를 한 후 박성수 장로의 인도로 2부 기도회가 시작됐다. 류계환 목사가 교단현황 보고를 한 후 김중호 장로와 손기호 장로가 △교회를 위한 기도 △연회와 교단 분리 과정을 위한 기도로 합심 기도를 한 후 윤선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밸리주하나교회 신임 담임 이태훈 목사

밸리주하나교회 신임 담임 목사에 이태훈 목사가 취임했다. 이 목사는 이 교회 교육목사로 사역해 왔다. 교역 오정택 목사는 목회를 잠시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한편 주하나교회는 부교역자를 청빙하고 있다. 하프타임 찬양 및 행정분야 부교역자를 찾고 있는데 자격은 교단과 관계없이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20-30대 후반을 선호하고 있다.
교회주소는 8131 Tampa Ave, Reseda, 91335이며 서류제출 및 문의는 이메일(valleyjoohana@gmail.com)로 가능하며 www.joohana.org를 통해 교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선교단체 현장에서 사라지는 20대 간사들...왜?

떠나는 선교단체 간사, 실패와 해법

선교단체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청년 간사들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선교단체 사이 보이지 않는 벽을 낮춰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교단이 선교단체와 동행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대 초반인 박철수(가명) 씨는 지난 2020년에 3년 6개월 동안 몸담았던 선교단체를 떠났다. 고정 급여 없이 전액 후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그가 단체를 떠날 무렵 받은 후원금은 월 100만원 남짓. 그 안에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 사역 경비까지 해결했다. 업무 강도도 높았다. 매일 이어지는 아침 QT, 학생 상담 및 심방, 저녁 집회를 비롯해 방학이면 청년 청소년 수련회와 해외 선교 간사 수련회까지 숨들릴 틈 없는 일정이었다. 박씨는 "체력적으로 방전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정서적으로 피폐해

는 일상의 반복 속에 우울증이 찾아왔다"며 단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8일 2023 성서한국대회 둘째 날 열린 성서한국 시니어 환영회에서는 '20대 활동가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의제로 떠올랐다. 성서한국 회원단체 원로들이 모인 자리였다. 김희석 성서한국 사무총장은 "14년 전 기독교청년운동에 함께 뛰어 들었던 동지들이 다 사라졌다"며 "다른 단체의 열성적인 동료들도 탈진을 호소하며 운동을 떠났다"고 토로했다.

간사 배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근성 학원복음화협의회 상임대표는 "꼭 20대를 배출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출신 신학교 간사만 세운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며 "영국의 경우 신대원 졸업생들

이 각 단체에 간사로 지원한다. 우리도 단체의 철학에 동의한다면 간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상임대표는 "MZ세대들은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2023년에 과거 간사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어느 조직이든 최저시급과 4대 보험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게 MZ세대의 상식"이라고 했다. 그는 "애초에 교단들이 캠퍼스 선교와 청년 사역의 가치를 알고 그들마다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교단들이 선교단체와 MOU를 맺고 해외 선교사 파송 하듯이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간사들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단체도 있다. 지부 단위의 후원 시스템을 통해 간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독교대학원협의회(EFSC·대표 정사철 목사)가 대표적이다. EFSC는 지부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풀링(pooling)'제도를 수시 운영한다. 후원을 초과 달성한 지부가 부족한 지부에 후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사철 EFSC 대표는 "간사라고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다"며 "예전에는 처우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를 죄악시켰다면 요즘 MZ세대는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문제다.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자리에 모인 37개국 1700여명 청년들 '아시아 선교' 꿈꾸다

인턴십 선교사 헌신, 동역자 세우기 등 선교적 삶 도전

전 세계 인구의 60%가 몰려 있는 아시아는 가장 도전적인 선교 지역이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중 대부분이 아시아의 '10/40장'(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북위 10~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에 분포돼 있다. 아시아 37개국 1700여명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전역을 넘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아시아 청년들을 차세대 선교 리더로 세우기 위해 기획된 '여라이즈 아시아(ARISE ASIA) 2023 대회'가 '원 라이프, 원 챌린지'라는 주제로 태국 방콕 노보텔방콕임팩트에서 지난 29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국제로잔운동 동아시아 대표인 데이비드 로(OMF 선교사)와 동남아시아 대표 필립 장(인터서브 말레이시아 이사회장)은 비서구권인 아시아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미전도종족 등

을 위한 선교를 활성화하고자 대회를 기획했다. 국제로잔운동을 비롯해 아시아권 복음주의 단체인 아시아복음주의연맹(AEA) 아시아신학연맹(ATA) 중국세계복음주의조직위원회(CCCOWE) 태국복음주의연합(EFT) 등 30여개 단체가 협력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지구촌교회·포도나무교회 청년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에서는 '1년 이상 인턴십 선교사로 헌신' '2명의 기도 동역자 세우기' 등 3가지 구호로 아시아 청년들의 선교적 삶을 도전했다. 강사로 나선 데이비드 플랫폼(백린바이블교회) 웨인 찬(레이디어스 아시아) 최성은(지구촌교회)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을 대표해 셋째 날 집회를 인도한 최 목사는 "복음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비롯해 믿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



코로나 확진자 5만...교인 건강 지킬 여름 사역법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또 다시 5주 연속 확산세 고공 행진

코로나19 확산세가 5주간 이어지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6개월 만에 5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르면 이달 중 방역 당국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할 거란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여름 사역에 나선 교회들이 감염 확산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5529명으로 전 주 대비 17% 증가할 수 있다. 증가세 속에 지난 26일 확진자는 5만7220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늘면서 임원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덩달아 불어났다. 직전 주와 비교해 위중증 환자는 24명 증가했고 사망자 역시 5명 늘었다. 지난 27일에는 하루 사망자만 23명에 육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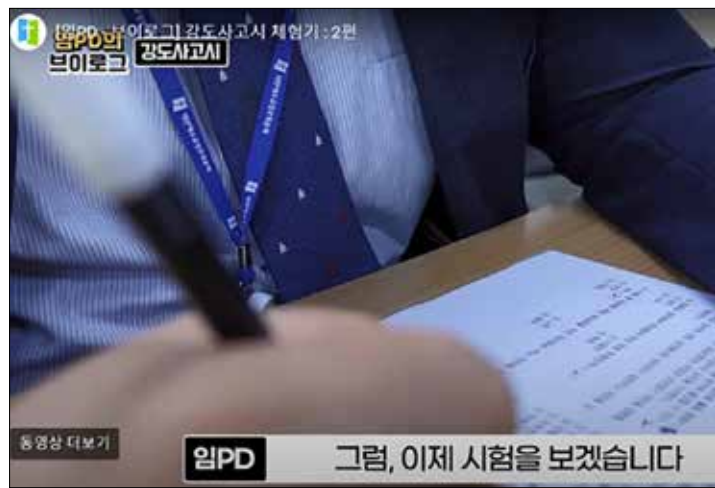
국내 대형교회 40여 곳의 30일자 주보와 교회 소식 등을 분석한 결과 교회 차원에서 새 방역 지침을 안내한 곳은 없었다. 교회는 감염병보다 여름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대다수 교회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나 청소년 캠프, 청년부MT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6월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등 방역 임원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여름 행사는 코로나 전의 열기를 회복했다.

코로나 대응 체계는 더 느슨해질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이달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대응 체계 역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될 경우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부 지원책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지원해 온 건강보험수가는 종료할 방침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지원해 온 수가 등이 끊기면 당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증상 환자 중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며 "입원이나 치료 등에 제약이 생기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 역시 질병청 정례 백브리핑에서 "당분간 유행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적어도 3주 이상 감염병 유행이 지속될 것 같다. 교회 여름 사역이 물려있는 8월은 특히 감염병 확산에 유의하며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며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교회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교인들과의 식사는 당분간 자제하시길 권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세대 눈높이 맞추기 위해 '브이로그' 가 떴다

예장합동 총회,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젊은 감성' 터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 홈페이지에 '브이로그' 서비스가 떴다.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개편한 예장합동은 전자 총회를 지향하면서 비대면 회의 플랫폼, 총회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그중에서도 '임PD의 브이로그'가 눈길을 끌고 있다. 브이로그는 영상으로 일상을 기록한다는 의미로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지난 6월 진행된 강도사교시를 소개하는 2편의 브이로그 영상에는 콘텐츠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임상문 목사가 출연해 '교회정치' 과목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담겨 있다. 임 목사는 현재 예장합동 총회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를 담당하는 실무자다. 임 목사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젊은 세대에 총회를 알리기 위해 브이로그 서비스를 하자는 의견이 모였다"면서 "목사·장로 등 교회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던 홈페이지에 브이로그를 보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찾아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강도사교시를 치렀고 목사가 됐지만 오랜만에 다시 강도사교시를 본 경험이 개인적으로도 무척 보람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 콘텐츠는 108회 총회 맛보기다. 임 목사는 "다음 달 열리는 총회를 앞두고 교단 정기총회 전반을 소개하는 아이템을 브이로그로 제작할 예정인데 총회가 열리는 대전 새로남교회 소개는 물론이고 주변 맛집도 찾아가 보려 한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춘 홈페이지를 만든 건 총회의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권순웅 총회장은 "단순히 홈페이지 개편만 한 게 아니라 총회 홈페이지를 빅데이터의 보고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부서 회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권 총회장은 "브이로그를 시작한 것도 다음세대들이 총회를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였다"고 말했다.

실제 예장합동 총회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소위원회(위원장 고광석 목사)는 개편 홈페이지에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총회 직원과 노회 서기가 활용할 수 있는 전자 행정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달 말에는 총회 헌법과 그동안의 결의 사항, 각종 보고서 및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총회 전자도서관 서비스도 오픈한다.



청주 상당교회, 전교인이 함께하는 여름수련회 '활짝'

기도·찬양·특강·오케스트라 음악회...

코로나와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으로 움츠려 있던 청주 상당교회 성도들의 삶에 얼음냉수와 같은 찬양과 뜨거운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지난 31일부터 사흘간 청주 상당교회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마7:7)라는 주제로 전교

인 여름수련회가 시작됐다. 사전 신청을 한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뜨거운 기대감으로 일찌감치 교회로 향한 탓에 본당 살롱을 좌석은 집회 시작 전에 이미 만석이 됐다.

뜨거운 찬양팀의 찬양과 기도로 문을 연 이번 수련회는

최근 충북 지역에 큰 피해를 준 집중호우와 홍수 등으로 침잠해있는 교우들과 지역사회 모든 이웃들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우리 삶의 수 많은 문제들을 두고 기도로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임재와 도우심을 구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첫날 저녁집회 강사로 나선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원로)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언급하며 예수의 공생애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시작됐고,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는 큰소리의 기도로 맺었음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에도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담임)는 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므로 막힌 모든 문제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맞

고, 나아가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므로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은혜로운 첫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둘째 날에는 '관계의 문'을 주제로 송길원 목사(청란교회 담임)가 특별강의를 진행하며 오후에는 충북 지역 선교의 아버지 민노야 선교사님을 기리며 민선교사님이 친히 작사, 작곡한 곡들을 오케스트라 팀이 연주하는 음악회를 갖는다. 저녁에는 워십팀 레비스타스의 찬양에 이어 '성령의 문'을 주제로 박오홍 목사(덕크로스처치 담임)가 집회를 이끈다.

마지막 날에는 '재정의 문'을 주제로 고명환 집사(개그맨·메밀꽃이 피었습니다 CEO)가 특별강의를 하며, 저녁에는 '소명의 문'을 주제로 안광복 목사가 저녁 집회를 이끌면서 참석자들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mission 선교의 창 (22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20세기 기독교 부흥운동의 진원지였던 남가주

사람들은 성지 순례를 갈망한다. 왜 그러한가? 메시아의 족적이 그 땅에 고스란히 남겨 있기 때문이다. 비록 2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그 지명들을 직접 보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픈 마음이 있다. 실제로 역사 현장의 현장을 보는 것과 간접으로 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만큼은 아닐지라도 신앙적 가치가 있는 곳들을 개발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유럽 대륙에는 이러한 사적지가 모범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미국은 역사가 짧다. 하지만 청교도들의 자취를 비롯해서 성령계에서 역사했던 곳들이 적지 않다. 20세기 들어 남가주는 기독교 부흥운동의 진원지였다. 우리가 사는 LA권에 이런 유적지가 있다는 것에 놀란다. 교회는 이제라도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었던 이 장소들을 잘 관리하며 신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1.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1906)

기독교 역사상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가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다. 윌리엄 시모어(William J. Seymour: 1870-1922)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하였고 어렸을 때 한쪽 눈이 실명한 노예 출신 흑인

목사였다. 그는 1906년 Bonnie Brea Street 214번지 목조 단층집에서 모임을 이끌었다. 이 때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가 일어났다.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치료받으며 기적적

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소문은 삼시간에 퍼졌다. 사람들이 너무나 모여들어 집의 축대가 무너졌다. 일대의 교통이 마비됨으로 경찰은 집회 장소를 옮기라고 했다. 결국 Azusa St. 교회로 옮겨 3년 반 동안 집회는 계속되었다. 1906년 4월 19일 LA Times는 "아주사 집회를 지진과 같았다"고 보도했다. 이 부흥운동은 첫째 방언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자극과 생기를 주었다. 둘째 흑인, 흑인, 황인 등 인종의 벽을 넘는 계기가 됐다. 셋째 미전역과 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별히 오순절 성령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2. 빌리 그레함의 LA 천막 집회(1949)

불세출(不世出)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1918-2018)은 전도집회를 1949년 9/25일~11/20일까지 현재 LA대법원(Superior Court)이 있는 자리에서 열었다. 원래 3주로 예정됐으나 집회 도중 8주로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35만명이 참석했으며 3,000여명이 결신했다. 당시 미국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영향으로 수많은 신문과 방송이 빌리 그레함을 주목했다. 이로써 빌리는 31세 나이에 미국을 대표하는 젊은 부흥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와 팀들은 1948년 캘리포니아의 모데스토에서 선언문(Modesto Manifesto)을 만들었다. 내용인즉, 1) 우리는 다른 단체나 단체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2) 주어진 재정을 책임 있

게, 가장 높은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완전히 공개한다. 3) 진실을 말하며 집회 참가자 숫자 등 모든 통계는 정직하게 발표한다. 4) 아내 외 다른 여자와 단둘만의 자리를 갖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성적 탈선의 가능성을 가져올 행동은 각별히 조심한다. 빌리 그레함은 이 선언문을 지침으로 평생 높은 도덕성과 순수함으로 185개 나라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라디오와 TV, 영화와 책을 통해 그의 설교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약 22억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3. 빌 브라이트와 CCC(1952)

빌 브라이트(Bill Bright, 1921-2003)는 대학생 선교회(이하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설립자이다. 그

는 1945년 만 24세가 되었을 때 유명한 성경교사인 헨리에타 미어즈(Henrietta Mears) 여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라는 도전을 받았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빌은 그날 밤에 두 질문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는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마 28:19절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 그는 온 세계를 향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거룩한 꿈을 꾸었다. 이후 대학생 선교사역은 UCLA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4영리전도 소책자와 10단계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었다. 또한 누가복음을 대본으로 영화 'JESUS'를 만들어 수십억 명에게 예수님

을 영상으로 만나게 했다. 빌은 결혼한 후 그 아내와 함께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겠다고 계약서를 쓴후 서명을 하고 그 서원대로 살았다. CCC는 지금 197개국에 세워져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27,000명의 전임 사역자와 225,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섬기고 있다.

4. 로렌 커닝햄의 YWAM(1960)

YM(Youth With a Mission)은 1960년에 로렌 커닝햄(Loren Cunningham)에 의해 시작되었다. 본 단체의 창시자인 로렌은 1935년에 캘리포니아의 태프트(Taft)에서 태어났다. 그는 나이 20세 때인 1956년 바하마 전도여행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것은 눈에 세계지도가 펼쳐졌고 파도가 대륙을 완전

히 뒤덮는 것이었으며 그 파도는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로 변했다. 이 환상은 YWAM이 시작된 배경이 되었다. 그 이후 1960년 남가주의 샌 가브리엘(San Gabriel)의 거실에서 선교단체 이름을 YM으로 정하고 사역을 시작하였다. YM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막 16:15)"는 주님의 대 위임령을 수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180개국, 1,100개의 지부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교파에서 모인 18,000여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5. 척 스미스와 Jesus People Movement(1970)

척 스미스(Chuck Smith: 1927-2013) 목사는 60-70년대 히피 문화로 갈 바를 찾지 못하던 미국의 젊은 세대를 주

다. 척 스미스는 그들이 자유롭게 찬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결국 이것이 현대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라나타 찬양이다. 이는 대중음악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복음의 정신을 담아내는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기독교 음악이다.

맺음 말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단순히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교회를 소생시키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역을 통해 성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자신의 온갖 죄악을 토로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구

기독교 부흥 운동의 사적지는 잘 보존할 가치가 있다. 남가주에는 20세기 영적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여러 곳 있다.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잘 관리하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님께 인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전도와 문화 사역을 감당했다. 1970년대 초, 그가 목회하던 갈보리 채플은 탈 전통문화를 지향했다. 그 사역은 히피들과 마약중독자들에게 거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갈보리 채플은 성령의 감동이 역사를 불러일으켰으며,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대서양과 그 너머에까지 퍼져나갔다. 그 이름은 "예수 운동(Jesus People Movement)"으로 불려졌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다. 척 스미스 목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대를 이끄는 음악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회심한 히피족 중에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르던 Rock & Roll 속에 간증과 고백을 담기 시작했

심점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 교수). 그렇다. 이런 부흥운동이 20세기 남가주에서 일어났다.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빌리 그레함의 천막 집회, CCC, YWAM, Jesus People Movement 등 그 역사의 현장은 우리 곁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허나 유감스럽게도 교회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무관심했으며 설사 알고 있다 해도 가치부여를 하지 않았다. 근자에 하나님의 은혜로 JAMA 대표인 강순영 목사를 통해 이 장소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제 우리 한인 교회들만이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사적지(史跡地)들을 귀히 여기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jrson007@hanmail.net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7)

판테스테스의 조지 맥도널드

루이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책을 좋아했던 루이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작가가 많습니다. 조지 맥도널드, G. K. 체스터턴, 찰스 윌리엄스 등등의 작가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살펴볼 작가는 조지 맥도널드입니다. 어린 시절 C. S. 루이스는 맥도널드(George MacDonald)의 환상소설 <판테스테스/Phantastes>를 읽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루이스의 상상과 환상의 눈을 뜨게 해 준 조지 맥도널드는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요 작가입니다. 그는 총 53권의 책을 남긴 작가였지만 그는 잠시 회중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작품을 남긴 작가였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아주 폭넓었습니다. 맥도널드는 시집, 소설, 허구, 환상 설교, 단편 등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조지 맥도널드의 작품은 19세기 말엽 영미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

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20세기에는 도덕적 혼계류의 글들에 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맥도널드의 작품들에 관한 관심이 퇴조했습니다. 진지하고 경건한 크리스천이었던 맥도널드는 모든 작품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책들을 남겼습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작품을 연구한 타냐 잉햄(Tanya Ingham)은 '맥도널드의 작품과 생애의 중심이 그리스도다'라고 밝힙니다. 맥도널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이 자기 삶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맥도널드 1824년 12월 10일 스코틀랜드의 헨틀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세기를 살아 다음 세기인 1905년에 사망했습니다. 맥도널드가 태어날 즈음에 산업혁명이 한창이었지만 맥도널드 고향에는 산업혁명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맥도널드는 농업과 수공업

이 성행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농장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표백제 생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맥도널드가 8세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살던 아버지가 7년 후 재혼하였는데 맥도널드와 그의 형제들은 대정하고 심성이 좋은 새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비교적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조지 맥도널드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1851년 3월 8일에 루이사 포웰(Louisa Powell)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루이사 포웰은 윌트가 넘치고 지적이고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맥도널드와 포웰은 평생 좋은 동반자요 친구로 피차 격려와 사랑을 나누었던 건강한 부부였습니다.

맥도널드는 화학과 물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가졌

으나 다시 런던에 있는 하이베리 대학(Highbury college)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비록 하이베리 대학에서 신학 공부는 2년이었지만, 그는 헬라어와 라틴어 공부에 열중해서 익혔습니다. 나아가 유럽 외국어를 습득해서 학문적 기초를 충실하게 다졌습니다. 그는 1850년에 졸업을 하면서 히브리어, 라틴어, 고대 헬라어 및 코이네 헬라어 그리고 독일어에 능통했다고 알려집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며 1850년에 회중 교회 목사가 되었고 아주 짧은 기간 목회를 했습니다. 맥도널드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구 지도자들은 맥도널드가 펼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에 대한 교리를 문जे 삼았습니다. 맥도널드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단 논쟁에 휘말려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맥도널드는 현장 목회는 그만두었지만, 설교집을 계속 간행했습니다. 그는 "선포되지 않은 설교(Unspoken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Sermons)"라는 이름으로 세권의 시리즈 설교집들을 발간했고, 이어서 "주님의 기적들(The Miracles of Our Lord)"과 "복음의 희망(The Hope of the Gospel)"이라는 설교집을 출판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맥도널드의 설교집을 사서 읽었습니다. 시대와 현상이 다르지만, 그의 설교가 던지는 목적인 메시지가 참 좋았습니다.

목회 현장을 떠난 맥도널드는 가정을 위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영문학 강의, 개인지도, 강연, 설교, 아동잡지 편집 등의 일과 문필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아내 루이사 포웰(Louisa Powell)과 맥도널드는 열한 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맥도널드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가족 극단을 구성해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다양한 문화 예술을 즐기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과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는 그의 작품은 감동을 주

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맥도널드의 뛰어난 상상력은 루이스 캐럴, J.R.R. 톨킨, C.S. 루이스, G.K. 체스터턴 등 환타지 작품에 도전한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조지 맥도널드의 판타스테스는 판타지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톨킨에게 영향을 주었고 C.S. 루이스의 영적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 작품입니다.

맥도널드 대표적인 작품은 <공주와 고블린>, <복음의 등에서>, <황금 열쇠>, <가벼운 공주>, <현명한 여인>, <판타스테스>, <릴리스> 등등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공감을 일으키며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현재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설교집 <전하지 않은 설교>는 목직 한 교훈을 담은 설교집입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그는 어머니를 앓아간 결핵을 자신도 앓았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 염려증 같은 맘의 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평생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맥도널드는 명랑하고 유쾌함을 보이며 여러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자녀 가운데 네 명을 병으로 잃고 노년에 아내 역시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은 뒤에는 말문을 닫은 채 침묵 속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도널드 자신은 1905년 9월 1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더 분명해진 구원 (롬 10:19-21) 찬 521장

사도는 복음 안에 완성된 구원의 이스라엘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는 무엇이였습니까? 첫째,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19)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베푼 은혜로 시기를 발동시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둘째, 이사야의 경고를 통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20-21상)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로 영적 투기를 일으켜 돌아오게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진노 중에서

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숨은 사랑입니다. 셋째, 사도에게 보인 그의 크신 사랑(21하)에 응답하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모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진리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것뿐입니다. 최대한의 사랑을 받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원리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복음의 의는 언제나 아쉬운 심판이 아니라 넉넉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화 남은 자의 구원 (롬 11:1-7) 찬 234장

남은 자의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구원받는 원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첫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2-4)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 분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둘째, 은혜의 구원임을 전함으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5-6)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됨을 또 증거합니다. 오직 택한 자 곧, 겸손히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만이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과 같은 노선을 따른 것뿐입니다. (6-7)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따라갑시다.

수 풍성한 복의 약속 (롬 11:8-12) 찬 456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하심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처럼 그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회개케 하는 방편으로 이방인의 회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총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룹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완전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총만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잃은 풍성한 복을 아는 우리는 진정 복된 자입니다.

목 이방인의 구원 (롬 11:13-24) 찬 384장

이방인의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기이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이방인에게 큰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주의할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함을 가리킵니다. (18, 20) 모든 죄의 뿌리인 헛된 자랑은 어디든지 서식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워해야 합니다. (20) 큰 은혜

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머물러야 합니다. (22)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짝한 까닭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 이스라엘의 구원 (롬 11:25-28) 찬 428장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습니까? 첫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25-26)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가 하나로 연합되어 한 새 이스라엘로서 구원을 받게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27) 일찍이 선진들을 통하여

약속된 새 언약 (렘31:31)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때가 되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 제각기 중심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이스라엘이 주축이 되어 둘이 한 사람을 이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들어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법제계적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토 만유의 주님 (롬 11:29-36) 찬 302장

택자의 구속의 신비를 안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완성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 그는 만물이 주께로 나음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공급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창조의 만물도 그 러했고 죄에서의 구원받은 재창조의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께로 나음을 보고 주를 찬송했습니다. 둘째, 이 구원을 친히 간섭하시고 성취하심을 본 것입니다. 앞치락뒤치락하는 역사의 흐름과 인간의 번덕 많은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정말 기이합니다. 셋째, 결국 이 만물의 마지막도 주께로 돌아감을 본 것입니다. 그는 주님만이 영광받는 것이 당연함을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 신앙을 가진 자의 찬송입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기독교교육 (31)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과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조직을 마친 후에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실행은 실제로 행한다는 말이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말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실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홍보와 감독과 기록입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인 실행의 원리를 생각해보고 홍보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 전달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거나 불안정하거나 부정확한 보고는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고자료는 보관해야 하며 실행의 성취를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성공 여부는 홍보에 달려 있습니다. 홍보는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사역활동이 계획되고 조직되었음을 회중에게 알려 동참을 유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목표달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행의 성공 여부는 홍보에 달려 있습니다. 홍보는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사역활동이 계획되고 조직되었음을 회중에게 알려 동참을 유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목표달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봉사자들을 일찍 확보하고 적합한 훈련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나서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 모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인원보다 10% 정도 더 모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에 투입되기 전에 사정상 헌신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자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 내의 홍보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계획이라면 홍보하지 않아도 회중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홍보하는 것을 자주 봤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봉사자들과 명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임무, 실행일정, 회의일시, 헌신의 기간 등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통은 개별적인 서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봉사자 모임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통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사역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는 교인들이 마음에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계획에 기반한 조직에 대해 알지 못하면 동참할 수 없습니다. 리더들은 교육 사역의 계획과 조직을 교회 전체에 알릴 방법을 강구하되, 적절하고 격조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감독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감독하는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정확히 알고 모든 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봉사자들과 리더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대보다 많은 일을 하는 봉사자들도 있는 반면,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의 핵심은 사람들을 훈련하여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많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1세기에 초대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예수님을 힘써 알렸기에 이방인들이 초대교회의 영향을 경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역사를 알렸습니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실행의 정상적인 진도를 위해 여러 분야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분야가 주어진 일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을 잘 조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들이 홍보에 앞장서야 합니다. 리더들이 계획을 이끌었던 것처럼 홍보도 이끌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홍보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중은 그 계획이나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동참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홍보에 가장 앞장서야 할 필요는 없지만, 목회자의 지원이 실행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실행상황을 회중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봉사자들과 회중 모두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회중에게 알리는 일은 참여자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를 위한 계획이므로 모두가 실행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보고는 모두의 관심을 새롭게 합니다. 보고서

홍보에 있어 최고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사역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온 홍보방법들은 다양합니다: 특별행사, 우편물, 포스터, 전단지, 주보, 게시판, 신문이나 방송, 촌극 등등. 교육사역팀의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면 다른 독특한 방법들도 고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홍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홍보는 알람을 통해 동참을 이끌어냅니다. 다음에는 감독과 기록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침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69. 아버지의 어원(語源)

아버지의 사상은 바로 '토라'(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전수할 특권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자손대대로 전수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남을 수 있고, 오실 예수님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신본주의 사상을 계승하려면, 먼저 아버지의 어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권위적으로 들리고 거리감을 느끼지만, 애칭으로 '아빠'라고 하면 부드럽고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원(語源)을 잘 알지 못합니다.

1. 한글의 어원

한글로 '아버지'와 '아빠'에 대한 어원을 추정해보면, '아버지'에 대한 어원은, 첫번째, 압+엣(綴) +-이(주격)=아버시 ->'아버지'가 되었고, 두번째, 압+엣+님=아벗님 ->'아버님'이 되었으며, '아빠'의 어원은 첫번째, 압(父)+-이(주격)= '아비'가 되었고, 두번째, 압+-아(호격)=아바

->'아빠'가 되었다고 한글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성경적 어원

'아버지'에 대한 성경적 어원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를 '아바'(ABBA)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에는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자'라는 네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 위임자로서, 하나님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호칭으로 '아바'(ABBA)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진 관계의 핵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고 확신에 찬 동시에 공손하고 순종적인 자세였습니다. 신약에서의 '아바'는 어린 아이가 부르는 호칭처럼 '아빠'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

떤 친밀함과 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말입니다.

헬라이어로는 아버지가 '파테르(Pater)'이지만, 복음서에서 '아버지'(Father) 또는 '그 아버지'(the Father)라는 말이 사용된 모든 경우에 그 밑바탕에는 '아바'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주목할 만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새로운 관계의 친밀성과 예수의 엑수시아(exousia:권세)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을 공격해 무찔러야 하는 예수의 사명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아바'로 인식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3. 아빠는 동, 서양에서 비슷하게 발음된다.

몽고에선 '아버'입니다. 우리와 '몽고 반점'(아이 엉덩이에 나타나는 푸른 멍)을 공유하고 있는 몽고는 혈통이 같아 그렇다고 짐짓. 그러나 멀리 동유럽의 헝가리에서도 '아파'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선 '파파.' 역시 아빠와 거의 닮은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기한 건 아랍인이나 유대인들도 '아바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빨리 발음하다 보면 꼭 아빠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아바'란 단어가 수차례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Abba Father)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느 아빠들 마냥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친근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아바'란 말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바'와 '아파' '아버'와 '아빠...'. 문화권은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파타니 종족

▲ 인구 10,600명

▲ 종족의 종교 상황 이슬람교 88%, 복음화율 12%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북말루쿠주 할마헤라섬 동쪽에 거

주한다. 말루쿠섬은 오래전부터 향신료 무역이 활발하여 스파이스(spice) 섬으로 알려졌다. 주로 화전 농업을 하여 이웃 간의 품앗이가 발달했다. 이슬람교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토착 신앙과 혼합된 종교 행위가 나타난다.

▲ 기도제목

- 1. 파타니 종족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2. 파타니어 성경이 번역되도록
3. 기술과 개발에 소외된 파타니 종족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4. 파타니 종족 사람들에게 전기, 물 등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기/도/칼/럼

돌아온 진순이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교회)

최근 경북과 충청지역에 내린 집중 폭우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농지가 유실 되고, 80여만 마리의 소,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산사태로 집들이 매몰되고, 도로가 사라지고, 제방이 무너지고, 교량 등 공공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큼니다. 현재 사상자가 85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조활동을 하던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을 했습니다.

실종자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산사태로 떠내려갔던 반려견 한 마리가 27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된 반려견 '진순이'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에 의하면 집에 빗물과 토사가 덮쳐 소나무를 붙잡고 겨우 버텼는데, 반려견은 떠 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진순이'가 하루를 지나 스스로 집을 찾아와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는데, 놀라고 반가웠다는 것입니다. '진순이'를 목욕시키는데 흠이 한

바가지나 나왔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진순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평생 돌보며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진순이'를 생각하며 누가복음 15장이 떠올랐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최고였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겼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

외쳤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진순이'가 돌아왔을 때 주인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속히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

bible66@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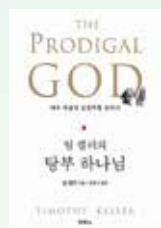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탕부 하나님 팀 켈러 두란노



최안 케고르, 오석환 역주 커리스 아카데미



김경은 성서유니온



민음은 묻는 딸에게, 아버지가 정한육 깊은 문고



손성찬 두란노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아들 이재성 생명의 말씀사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인/터/뷰

12월 찬양콘서트 준비하는 러빙위십과 제이어스

남가주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 번 불어와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12월 찬양연합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러빙위십(대표 조셉 리 목사).

조셉 리 목사는 이를 위해 조국 대한민국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제이어스(J-US 대표 김준영)와 함께 남가주에서 연합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3개월 전부터 한국과 세리토스에서 온라인 미팅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집회를 준비해왔으며 지난 7월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세리토스에 있는 러빙위십 스튜디오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조셉 목사는 "12월에 남가주 LA의 한국과 오렌지카운티의 두 곳에서 연합찬양집회를 열게 되며 장소는 교회가 아닌 극장이나 콘서트홀에 될 것"이라며 "아직 집회 날짜를 정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교회가 아닌 콘서트홀에서 집회를 하게 된 것은 집회가 열리는 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싶어서이며 찬양도 영감 있는 찬양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무대연출 역시 보다 영감 있는 무대로 디자인하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많은 이들이 찾아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 음악을 만들기로

다 조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음세대의 암담한 영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느헤미야 1장을 바탕으로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며 성벽재건에 뛰어드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이어스의 김준영 대표는 "제이어스는 팬데믹 이후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등 전국투어를 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열리게 되는 남가주 집회도 전국투어의 연장선상의 의미로 갖게 되었다"며 "러빙위십과 함께하는 찬양연합집회를 통해 성령께서 남가주를 깨워주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집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조셉 리 목사는 지난 1995년 한국에서 총신대학교 재학 중 도미하여 UCI에서 MBA를 마친 후 아주사피서픽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학위를 취득하고 2009년 ECA(Evangelical Church Alliance)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가정의 위기를 맞은 자, 진로가 막혀 막막해하는 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자 등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자들과 많은 만남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옆드려 무릎 꿇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과 교제를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갔더니 문제해결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한명 한명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탐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러빙위십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며 러빙위십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러빙위십은 시편 40편1절 말씀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저와 만났던 분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을, 소망이 없는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말씀만을, 낙심한 시간에 간절한 무릎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자



제이어스 김준영 대표와 러빙위십 대표 조셉리 목사

이 목사는 러빙위십을 통해 네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 첫째, 매달 둘째 토요일과 네번째 토요일 오전10시 Cerritos Crossroads Multinational

기 전까지 M&A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힘있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 대표 및 실무자들과 기도와 사업전략 및 비전

요한 부분(언어, 장비 지원 등)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조셉 리 목사와 김준영 대표는 이번 집회를 통해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러빙위십과 함께하는 찬양연합집회를 통해 성령께서 남가주를 깨워주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집회 되기를”

Church of the Nazarene에서 찬양예배를 드리고 있다. 둘째, 삶의 역경을 주님과 만나고 함께 이겨낸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는 러빙지저스칼럼을 쓰고 있으며 그가 쓴 칼럼은 매일 4천여명이 보고 있다. 세 번째, 그는 경영학석사(MBA) 취득과 함께 목사가 되

사모하는 이들의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곳이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 없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영혼들의 간절한 그 예배가 있는 곳 러빙위십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를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다. 넷째, 방송 멀티미디어 사역으로 찬양예배때 나누었던 말씀과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찬양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러빙위십채널을 통해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국에서 집회 참석차 남가주를 방문하는 사역단체들의 필

집회만 잘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집회를 통해 남가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562)200-6200, jackiechung71@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베드로 진서 4



김경진 목사 (벨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설교 만들기 1

조금 고민을 했다. 제목이 좀 어색했다. 설교는 하는 것이지 만들다니.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로 하려다 그냥 만들기로 하고 글을 쓴다. 나는 신학교 때부터 설교하는 것이 좋았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

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그렇게 하려니 성경을 나름대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하고 해석도 설명도 조리 있게 함으로 더 나은 설교를 만들려고 헌신을 했다고 하겠다.

그런데 때로는 설교를 한 이후 아찔한 순간이 있을 때도 몇 번 있었던 것 같다. 해석의 오류 또는 전달의 미숙함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목회 중반부터 나는 설교를 외웠기에 때로는 순서가 바뀔 때가 있었고 연도나 사람 등의 이름을 잘못 말할 때도 있었으니.

은퇴 이후 그래도 나는 설교를 만드는 것이 좋았다. 혹자는 설교하실 곳도 없으면서

설교는 왜 만드느냐 하고 물을 때 나는 내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설교를 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답했다. 그런데 은퇴 후 가슴 아팠던 일은 책장을 정리하면서 40년 동안 했던 설교의 원고를 어느 정도 버릴 때였다. 그 설교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한글로 된 원고라 자녀들에게 줄 수도 없고. 가슴 아프게 버렸지요.

repeterk@hotmail.com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